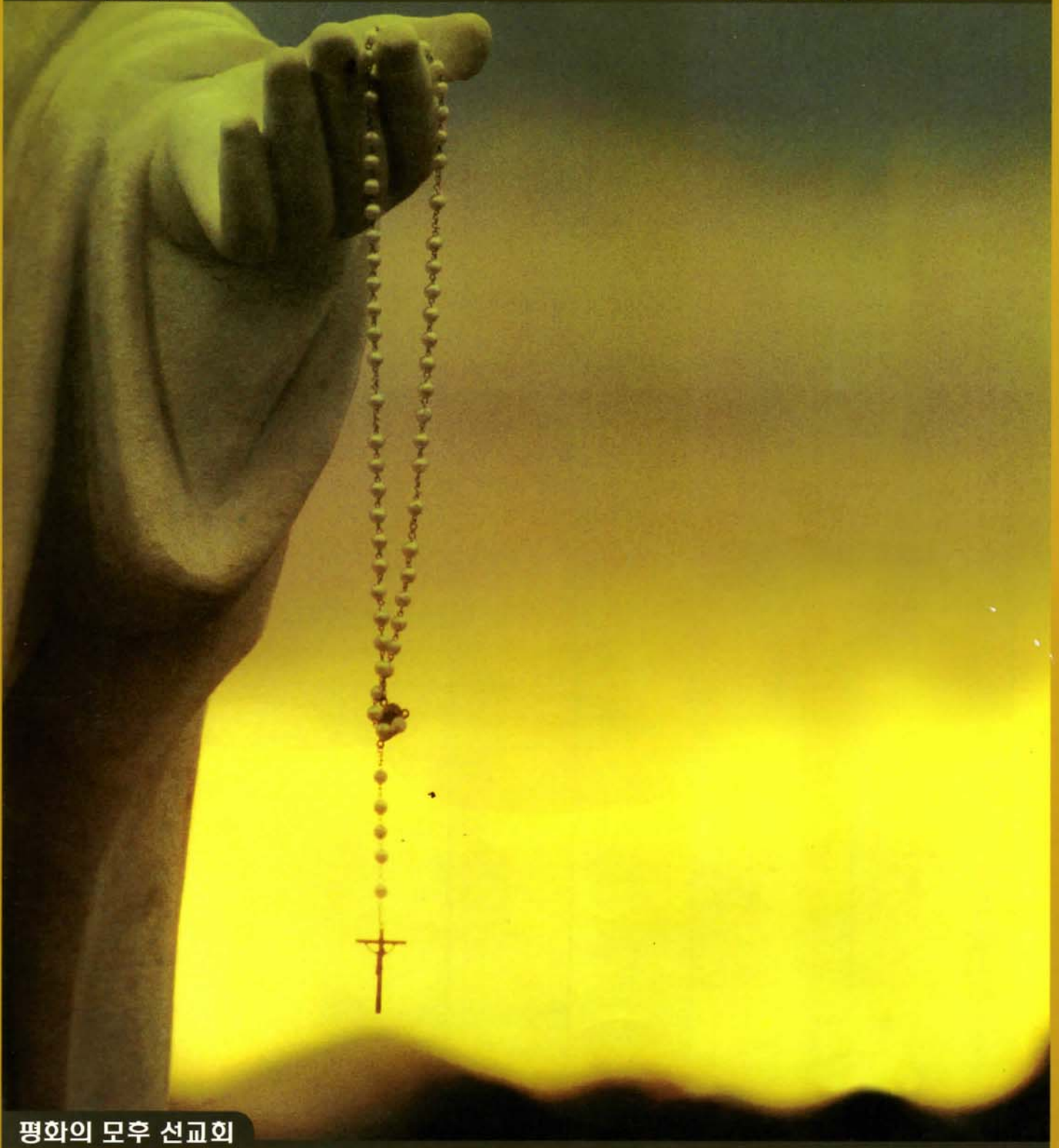


# 메주고리예



Medjugorje

OCTOBER, 2005 제29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비록 나의 성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나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회개하라고 부른다.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이기에 나의 성심  
 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들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 아픔을 느끼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혼자 버려두지 않는단다. 나는 너희들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으로 갈 것이라고 믿는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주어 고맙다.

2005년 9월 25일 메시지

## 성체의 가르침을 새롭게 하십시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지난 10월 3일,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그날 열리게 될 시노드 주교 회의에 대해 언급하시며, 성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현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신자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시노드 주교회의는 3 주 동안 열리게 되며 교회의 생명으로서의 성체에 대한 주제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성체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변치 않으나 그 가르침의 방법은 면밀히 연구되어 성체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현대인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성체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얼굴과 위치를 재점검 할 수 있는 렌즈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며 오직 그분 안에서 삶의 충만함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황님께서서는 군중들에게 10월이 로사리오 성월임을 상기시키셨다. "이 경이로운 묵상기도를 통해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의 눈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얼굴에 고정되도록 이끄십니다." 하시며 신자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 묵주기도에 대한 키텔릭 신심을 다시 꽃피워 달라'고 당부하셨다.

10/3/05 바티칸 (CWNews.com)



##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지향과 어머니 마을을 위하여...
- 교황님과 성교회와 모든 사제들을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음악선교단과 지도 신부님을 위하여...
- 미카엘과 엘리사벳을 예수님과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성모님, 글라라의 건강과 가족들을 돌보아주세요.
- 저희 가정에 주신 새 생명과 가족들을 봉헌합니다.
- 창우의 치유와 가정을 주님의 뜻에 봉헌합니다.
- 아들이 겪는 고통과 가정을 돌보아주세요.
- 성모님, 신바오로, Jesus의 건강과 가정을 돌보아주세요.
-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언니와 동생의 가정을 봉헌합니다.
- 주님, 남편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가정을 인도해주세요.
- 배고픈 고아들,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 보람이의 영혼과 가족들을 예수님과 성모님의 품에 봉헌합니다.
- 성모님, 아들의 성소가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김아가다의 치유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 자녀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새로운 한의원의 정착을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모든 봉사자, 후원회원들과 가정을 위하여...
-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모든 부부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 주님, 모든 장애아들과 부모들의 고통을 돌보아주세요.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희생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동생과 저희 사업을 돌보아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아이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학업, 직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낙태된 아기들의 영혼과 낙태될 위험에 처한 아기들을 지켜주세요.
-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마약에서 아들을 구해주세요.
- 양미키엘라, 김마리아, 김헬레나, 정카타리나, 민마르코, 홍진유, 권글라시아, 김베드로의 건강을 보살펴주세요.

- 
-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9월 메주고리에 순례 때 미사를 봉헌하였고, 요조 신부님께서도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주님, 저희가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요조 즈브코 신부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 신부

1981년 6월 24일, 어린이들은 발현 산에서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았다. 성모님께서는 "나는 평화의 모후이다.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고자 왔으며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다. 6명의 아이들은 성모님을 신뢰하고 자신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에 믿음으로 많은 위험 앞에서도 견딜 수 있었다. 그 후 25년이 지났다. 성모님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감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흠숭하고 기도드렸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제와 수도자의 길을 갔다. 만약 이 아이들이 성모님의 발현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열매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도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한다. 나는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 인준 여부에 대하여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먼저 이곳에 와서 보고 말하라고 말하고 싶다. 믿음은 성서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나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메주고리를 인준하는 것은 성모님께서 교회의 몫으로 남겨 주신 일이다. 우리는 교회가 하는 일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고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메주고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간다면, 인준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삶 속에서 내가 먼저 복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성모님께서는 발현 초기부터 묵주기도 자체가 축복과 기적임을 말씀하시며, 모든 가정에서는 십자가를 모시고 그 앞에 모여 매일매일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라고 하셨다. 교황님께서도 묵주기도를 드리는 가정은 그리스도와 일치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성모님께서는 미사와 성체를 강조하시며 우리는 미사를 사랑하고 성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흠숭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셨다. 그러므

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서도 순례의 진정한 의미와 받은 은총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곳을 다녀간 순례자들이 성모님 메시지의 씨앗이 되어 자신들이 속한 곳에서 변화된 삶과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성모님께서는 척박한 땅 메주고리예를 옥토로 만들어 주셨다. 성모님께서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이웃과 교회를 위해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하신다. "어느 날 기도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그때 기도해야지."라고 미루지 말자. 성모님께서는 순례자들에게 십자가 산과 발현 산을 오르며 흘리는 땀과 고통을 통해 자신의 삶 안에 있는 죄의 무거움을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죄와 그 결과들을 고해성사를 통해 벗어버리라고 하신다.

1970년 어느 날, 메주고리에 주민들이 세운 십자가 산에 세워진 십자가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 자리에 성모님이 보였다가 다시 사라졌다. 그러나 곧 십자가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면서 십자가 왼쪽으로부터 '평화, 평화, 평화'라는 글자가 나타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성모님께서는 "나의 아들의 십자가를 목상하여라.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을 배워라."하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다른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통하여, 또 하나의 사랑이 탄생되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나는 너를 창조했고 나는 너를 불렀다. 네가 어둠 속을 지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다. "이 분이 네 어머니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묵시록 12장을 보자. 열린 하늘 아래 12개의 별이 달린 월계관을 쓴 여인,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이 서 있다. 교활하고 강한 용은 아이가 태어나면 잡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마리아와 교활한 용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우리들의 원수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는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오늘도 성모님께서는 6명의 어린아이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성모님을 받아들여 어머니로 모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삶 안에 있는 어려움을 성모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이 분이 네 어머니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어머니께서 메추고리에 발현하시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을 살 수 없다. 우리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축복하시어 사랑으로 어머니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소서. 어머니가 계신 곳에 저희들도 함께 있게 하여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제는 여러분이 응답할 차례이다. 성모님께 마음을 열어, 엘리사벳처럼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주시다니!" 하며 성모님을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치유해주시는 엄마,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다. 이제 어머니의 성심에 우리들의 삶과 가정을 봉헌하자. 그리고 기쁘게 그분께 말하자. "Totus Tuus! 나는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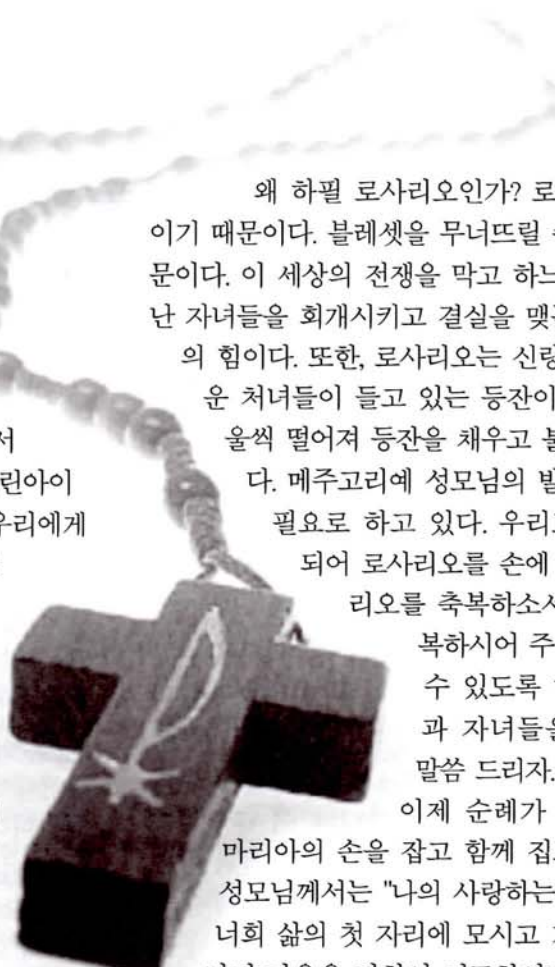
성모님께서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하시며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오늘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로사리오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삶과 동정녀의 삶을 닮고자 하는 우리들의 결심을 봉헌하자. 우리가 삶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녀들에게 "너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로사리오를 손에 들고 기도하여라."라고 하신다.

왜 하필 로사리오인가? 로사리오의 다윗의 돌이기 때문이다. 블레셋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전쟁을 막고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녀들을 회개시키고 결실을 맺는 것이 이 로사리오의 힘이다. 또한, 로사리오의 신랑을 기다리던 슬기로운 처녀들이 들고 있는 등잔이다.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져 등잔을 채우고 불을 밝혀주는 기름이다. 메추고리에 성모님의 발현은 우리의 응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도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로사리오를 손에 들고, "주님, 이 로사리오를 축복하소서. 저희의 마음을 축복하시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소서."라고 말씀드리자.

이제 순례가 끝나면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모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을 너희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기도가 기쁨이 될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여라. 성서를 매일 읽으면서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소서.'라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려라. 미사를 봉헌하고 성체를 모시며 기도 안에서 가정을 쇄신하여라. 이렇게 함으로써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단식을 위한 단식을 하지 말고, 말과 생각과 행동, 음식과 사치심 등을 절제하는 것도 참된 단식 중의 하나라고 하시며 생활속의 실천을 말씀하셨다.

"주님, 저희에게 은총과 평화를 주시어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증거하는 진정한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당신 손을 높이 쳐드시어 우리 가정을 악에서 보호하시고 모든 위협에서 구하소서. 주님, 당신 앞에는 불치의 병이 존재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은총으로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어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소서. 어머니, 당신의 모성으로 세속의 물질만능주의에 젖어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진정한 평화와 축복을 내리소서. 아멘!" **M**

(이 내용은 순례 때에 요조 신부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태리어를 번역해주신 오세완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주 -)



## 형제들에게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어주십시오.

번역 : 윤 종식 디모데오 신부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신부  
의정부 교구 / 로마유학 전례학 박사과정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의 하느님은 생동하는 사랑과 헌신 자체이신 성체 안에 살아 계시며 친밀한 성체를 받아 모시며 성화되려 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 머무르십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그대

들을 위해 이렇게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이 끊임없는 사랑은 그대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자주 그대들의 마음을 잘못된 판단에 휘말리게 하고 잃어버린 것들에 집착하게 하는 세상이 주는 갈증에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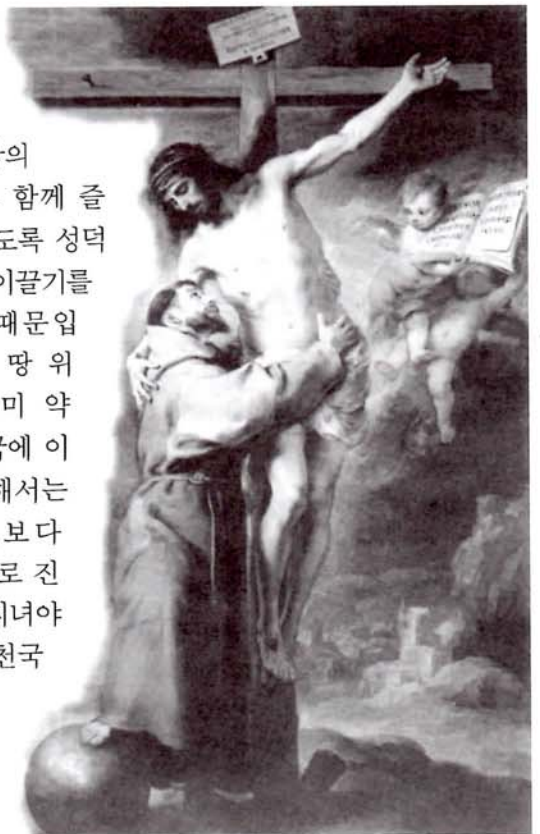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행했던 것 같이, 그대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생명수를 주고자 합니다. 이렇듯 밤낮으로 나를 찬양하기 위해 겸손하게 몸을 낮추는 그대들 각자에게 나는 영원한 생명인 성령의 물을 줍니다. 오직 나의 사랑만을 느끼도록 그대들을 변화시키며 형성시키고 성화시켜주는 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으로 살아가는 그대들이 되게 하기 위한 부족함 없는 나의 사랑입니다. 나는 그대들이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서는 아주 작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끊임없이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나를 찬미하기를 바랍니다.

성체찬미는 그대들을 침묵으로 이끌면서, 그대들의 마음속에 나의 왕국, 나의 진리를 보다 확실하고 투명하게 선포하는 나의 사랑과 목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나의 왕국은 순수한 마음을 지향합니다. 이 순수한 마음이란 내 성심으로부터 나의 열린 늑골에서 솟아나는 샘물만을 열망하는 마음이기여, 세상의 것을 버리고 나

의 목소리에 순수하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대들의 마음은 언제나 나를 향한 열망을 지녀야 합니다. 나의 왕국과 사랑, 그리고 이 왕국에서 맛보는 기쁨과 평화를 이 세상에 선포하려는 열망입니다. 그대들은 이미 나의 끊임없는 사랑의 환희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대들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숨어계신 하느님의 가장 내밀한 현존을 발견해야만 하는 사람의 마음을 겸손과 자애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대들은 하느님을 도와서 모든 이들을 성화로 이끌어가는 이 여정의 전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이들을 그 길로 부르고, 내 성심과 그대들 각자의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사랑의 열매들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성덕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 위에서, 이미 약속된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진실함을 지녀야 합니다. 천국은 삼위일체 안에서 일치되는 이



루는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친밀하고 완벽한 영성체 안에 머무를 곳을 찾으며 성체 안에 가까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대들은 나를 사랑하고 증거하며, 내가 성체 안에 현존하면서 살아있음을 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끈기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성심은 그대들 중의 누군가가 무관심과 미지근함, 그리고 냉담함으로 내 곁에 다가올 때 슬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성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 한 가운데에서 또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복음의 힘있고 용기있는 선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과 일치되는 사랑 안에서 신앙의 순교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대들의 하느님은 그대들의 손에 겸손되이 당신을 맡깁니다.

나에게 찬미를 드리는 성시간에 나는 그대들의 희생에 보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대들의 형제들과

나를 찾고 있으나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의 이익을 위한 자애로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대들은 복음과 성체를 통해서 나의 현존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신앙인들의 마음을 인도하십시오. 나는 내 진리를 그들의 마음 안에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그대들에 의해 선포된 복음과 나로 인해 기인한 육화된 진리의 충만함에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자, 성령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그대들은 봉헌된 신앙인들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라면 나는 신앙인인 그대들의 노력에 보답할 것입니다. 내 성심 안에서 그대들을 축복하고, 부정적 사랑으로 보호합니다. 모든 이가 그대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맞아들이고, 그대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세상이 나를 사랑하도록 영혼들을 인도하십시오. 아멘. M

##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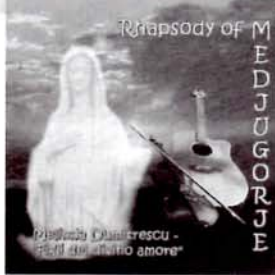
우리의 영혼은 평화롭고 고요한 가운데 하느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한 기도 방법이 성시간입니다.



이 성시간 동안 성체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신앙과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고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평화의 모후이신 우리의 어머니 복되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 평화의 모후 지도 신부 신경남 스테파노 -



슬라브토 신부님 책 '성시간' 마음을 다해 내 아들을 음송하여라' 가 출판되었습니다. 전국 성바오로말 서점과 교회서적 센터들, 그리고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속에서 신앙으로  
마약중독자에서 사제의 길을 향하게 된  
체임이 담긴 성체를 통한 치유의 메주고리에 음악**

- 옥수동 성당의 은혜로운 성시간 DVD, 비디오, CD.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3 set.
-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매월 메시지 Tape 3set.
- 요조신부님의 다섯 개의 조약들
-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구입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965-6168) • 한국: 노 마리노 (010-7310-9678) • 캐나다 지역: 이 테레사 (403-288-0469)  
• LA지역: 성 바오로 서원 (714-638-3855) • 평화의 모후 성물 센터 (323-730-1499)

## 열쇠와 사슬을 든 천사

로사리오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92. 10. 7. 블루멘펠트(독일)

스테파노 곱비신부

마리아 사제운동, 다락방 기도회 창시자

1. 너는 오늘, 내 '티없는 성심'에 봉헌한 사제들과 평신도들의 '다락방'을 열려고, 이곳 독일의 내 '운동' 본부에 와 있다.
2. 너희는 나를 '거룩한 목주의 동정 마리아'로 공경한다.
3. (과연) '목주기도'는 나의 기도이다. 이 기도를 청하려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했으니, 그것은 이 기도가 현재의 대전투기에 너희가 꼭 사용해야 할 무기일뿐더러 내 확실한 승리의 표지인 까닭이다.
4. 나의 승리는, '사탄'이 그의 강력한 군대 - 지옥의 모든 악령들로 이루어진 군대 - 와 함께 암흑과 죽음의 제 나라에 간힘으로써 다시는 해를 끼치려고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게 될 때 성취될 것이다.
5. 그러기 위해서는 '나락'의 열쇠와 사슬을 (손에) 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묵시 20,1), 오래된 뱀으로서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커다란 용(\*묵시 12,9 참조)을 그의 모든 추종자들과 함께 사슬로 묶어야 하는 것이다.
6. 천사란 특별한 임무를 띠고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되는 '영'이다.
7. (그런데) 나는 '천사들의 여왕'이다. 사탄 정복이라는 가장 중대한 사명 완수를 위해 주님의 파견을 받는 것이야말로, 바로 나에게 대한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는 사명이기 때문이다.
8. 사실, 나는 영원으로부터 뱀의 원수로서 그와 싸워 결국에는 그의 머리를 짓밟을 '여인'으로 예고되었다: "나는 너를 여인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9. 나의 후손은 그리스도이시니, '구원 사업'을 통해 사탄의 종살이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신 그분 안에서 나의 완전한 승리가 성취된다.
10. 그러기에 '지옥' 문을 여닫는 열쇠가 내게 맡겨진 것이다.
11. 열쇠란 자기 소유지의 주인이며 지배자인 자에게 속한 권한의 표상이다.
12. 그런 의미에서 우주의 열쇠를 지니신 분은 오로지 '육화하신 말씀'(\*요한 1,14) 한 분뿐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요한 1,3),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전체, 곧 하늘과 땅과 지옥의 '주재자'이시며 '왕'이신 것이다. (\*필립 2,10 참조).
13. (그러므로) 지옥의 열쇠도 내 성자 예수께서 홀로 가지고 계신다. 그분 자신이 바로, 당신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묵시 3,7; 이사 22,22)이시다.
14.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적 권능을 표상하는 이 열쇠를 내 손에 맡기신다. 그분의 '어머니'요, 너희와 내 성자 사이의 중개자인 내게, 사탄과 그의 악하고 강한 군대를 쳐부술 임무가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열쇠로 내가 지옥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것이다.
15. 커다란 '용'을 묶어야 할 사슬은, 나와 함께, 나를 통



묵주기도는 사탄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

해서 바치는 기도로 만들어진다. 그 기도가 다름아닌 '거룩한 묵주기도'이다. 사실, 사술은 첫째로 그것에 묶여 있는 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 둘째로 그를 가두는 역할, 마침내는 그의 모든 활동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왜 너희더러 거룩한 묵주기도와 내 메시지에 대한 묵상, 그리고 티없는 내 성심에 너희를 봉헌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다락방' 기도회를 곳곳에 확장하라고 당부

16. 거룩한 묵주의 사술은 무엇보다도 우선, 내 '원수'의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너희가 나와 함께 바치는 모든 묵주기도는 '악마'의 활동을 억제하고, 그의 간악한 영향으로부터 영혼들을 빼내고, 수많은 내 자녀들의 생활 안에 더욱 활기차게 선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17. 거룩한 묵주의 사술은 또한 사탄을 가두는 효과, 곧, 그의 활동을 무력하게 하여 그 악마적 권세의 힘을 갈수록 약화시키는 효과를 낸다. 그러기에 묵주기도를 정성껏 바칠 때마다 악의 세력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 기도는 무너져가는 그의 지배(력)의 일부를 나타내는 (셈이) 된다.
18. 거룩한 묵주의 사술은 마침내 사탄을 완전히 무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의 큰 권세가 꺾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악령들은 불과 유황 구덩이로 던져지고, 내가 '그리스도 권능'의 열쇠로 그 문을 잠글 것이니, 그들은 더 이상 영혼들을 해치려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19.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제 너희는 '태양을 입은 여인'(\*묵시 12,1)인 나와 '커다란 용'(\*묵시 12,9)

하는지, 그 까닭을 깨달았을 것이다.

20. 이 다락방들로서 너희는 너희 '천상 엄마'에게 사탄을 묶는 일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그리하여 그의 머리를 밟기로 되어 있는, 즉, 그를 영원히 패배시켜 불과 유황의 지옥에 가두기로 되어 있는 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한다.
21. 거룩한 묵주의 보잘것없고 약한 끈이 나로 하여금 세상의 어두운 지배자, 하느님과 그분의 충실한 종들의 원수를 나의 포로로 사로잡게 하는, 힘있는 사술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작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힘에 의해 사탄의 교만이 다시 한 번 굴복하게 될 것이다.
22. 오늘 나는 나의 위대한 승리 - 너희에게 확실한 해방을 가져올 그 승리가 다가왔음을 선포하는 한편, 너희 가운데 내 모성적 현존의 위로를 선물하면서 너희를 축복한다. **M**

(이 메시지는 마리아 사제 운동과 다락방 기도회의 창시자이신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주신 성모님의 479번째 메시지입니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책을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 로사리오 기도는 일치의 기도이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로사리오 또는 묵주이다. 로사리오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세계 어디에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톨릭 교회의 상징물이 되고있다. 비록 로사리오를 만든 재료나 디자인이 지역 문화와 예술성의 차이에 따라 약간씩 다를지라도 로사리오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사도신경과 주의 기도, 성모송의 암송을 위해 한 알씩 만들어진 표시는 모든 로사리오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특성이다. 현재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로사리오는 알맹이의 숫자에 따라 몇 가지가 있는데, 간편하게 손가락이나 팔목에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1단(성모송 10번) 묵주와, 가장 보편화 되어 있는 묵주으로써 세 가지의 신비(1569년 도미니코 수도회 소속인 바오로 5세 교황께서 설정하여 반포한 환희·고통·영광의 신비)중 한가지 신비(각 신비는 그 신비의 주제에 어울리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다섯 가지 구원 사건들을 기억함)를 완전히 마칠 수 있는 5단 묵주이다.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성모님의 7가지 기쁨 및 슬픔을 묵상할 수 있는 7단 묵주가 있으며, 환희 - 고통 - 영광의 신비(15가지 구원 사건)를 한꺼번에 묵상할 수 있는 15단 묵주가 있다. 한편, 12세기 도미니코 성인에 의해 소개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 로사리오 기도는 몽포르의 루도비꼬 및 리구리오의 알폰초 성인을 비롯하여 여러 교황님들의 사랑받는 로사리오 축일이 제정된 역사적인 배경과 기도에 대한 체험 및 의미를 알아보자.

### 1) 로사리오 기도는 가장 힘있는 기도이며 하느님 승리의 기도이다.

12세기 도미니코 성인은 거룩한 로사리오 기도를 통해 무력을 일삼는 당시의 이교도들(Albigensian heretics)과 대항하여 싸웠다. 그는 로사리오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로 여겼으며 기도의 힘으로 이교도들을 산

산조각 흩어지게 하였다.

또한 레판토 해전은 1571년 10월 7일에 있었던 그리스도교 연합군과 오스만 터키 함대 사이의 전쟁이다. 기도를 바치며 전쟁터에 나간 그리스도교 연합군은 돈 후안 데 아우스트리아의 지휘로 206척의 함대(베네치아 108척, 나폴리 29척, 제노바 14척, 스페인 13척, 교황군 12척, 말타 3척, 약8만명의 병력)로써 뒤흔진 자데 알리 파샤가 지휘하는 230척(약12만명의 병력)의 오스만터키 함대와 레판토 부근에서 3시간의 격전을 벌인 끝에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때 그리스도 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힘은 바로 로사리오 기도였다.

사람들은 성모님의 돌보심과 가장 힘있는 전구로써 승리의 영광을 가져왔다고 믿었다. 그래서 교황 비오 5세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로사리오의 대 헌장이라고도 하는 그의 교서 *Consueverunt Romani Pontifices*를 통해 1571년 10월 7일 로사리오의 마리아를 기념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1573년 축일로 제정되었다.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1716년 매년 복되신 하느님의 모친께 특별한 영광을 드리는 로사리오 축일을 교회의 보편 축일로서 지낼 것을 공포하였다.

한편, 로사리오기도의 효력과 성모님의 중재능력은 근대에 이르러 그 절정에 달하게된다. 팔에 로사리오를 걸치신 성모님은 루르드에서 벨라멧따에게 수 차례 발현하시면서 기적을 드러내셨으며, 파티마의 산골짜기에서는 성모님께서 어린 루시아에게 나타나셔서 로사리오 기도를 강조하셨고 친히 기도문을 주시기도 하셨다. "예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 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 2) 로사리오 기도는 회개와 위로의 기도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되돌리는 것이며, 위로라는 것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



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로사리오 기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은총을 주신다. 엄숙하고 간구하는 자세로 바치는 주의 기도를 성모님과 함께 바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기원한다. 그리고 찬미 가득한 마음으로 바치는 성모송에서 우리는 주님이 늘 성모님과 함께 하듯이 우리와 함께하리라는 확신을 갖는다. 또한 예수님과 성모님의 이름을 계속 호칭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 성모님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새로이 기억한다. 다음은 한때의 잘못으로 청송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문바로 형제가 로사리오 기도를 통한 회개와 성모님의 위로를 체험하면서 경향잡지의 경향 사랑방(1999년 5월호)에 보낸 사연과 1951년 중국 감옥에 갇혀 있던 중국 카이펑의 가에타노 폴리오 대주교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넘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날마다 묵주기도를 성모님 발 아래 장미화관을 바치며...**

"지난날 탐욕의 노예가 되어 하느님을 외면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온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부활하신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묵주기도를 바치며 살아가고 있다. 묵주기도

로 성모님 발 아래 장미화관을 바치지만, 나는 여기 갈릴래아 공소안에 모셔져 있는 성모님 앞에 꽃 한 송이라도 바치고 경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 속에 지냈다. 이곳 담장 안에 갇혀 사는 형제들을 잔잔한 미소로 내려다 보시며 지켜주고 계시는 성모님께서 홀로 외롭게 계시는 것을 보고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성호만 긋고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다."

문 바로로

**감옥에서 바친 묵주기도...**

어느 날 나는 시아오 메이(1951년 당시 엄마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던 4살짜리 꼬마 여자아이)에게 말했다. "감옥에 있는 묵주 중에서 제일 작은 것 하나만 내게 갖다 주거라." 그 아이는 다음날 다시 와서 문틈으로 무엇인가를 집어넣으려 했다. 그러나, 묵주 알이 너무 커서 받을 수가 없어서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얘야, 그 묵주를 감추어라. 엄마에게 가서 가는 실 조각을 모아 묵주를 만들어보라고 하렴." 그런데 사실은 감옥 안에서 줄이나 끈, 띠 등을 소유하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다. 며칠 지나자 시아오 메이가 다시 왔다. 그 아이는 문틈으로 무엇인가를 밀어 넣었다. 그것을 끌어 당겨보니 20센티미터 정도 되는 가늘고 작은

목주였다. 어떻게 재료를 구했는지 알아보니, 당시 희생자들의 옷에서 풀어낸 실을 모아 짠 것이었다. 목주는 20개의 매듭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그 20개짜리의 목주를 가지고 무서운 박해가 이어지는 그 지역을 위해, 우리 교우들이 어떤 고통과 폭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정신을 집중하며 기도를 드리곤 하였다. (중국 카이펑의 대주교 가에타노 폴리오, "창살 속의 금 십자가", PIME, 나폴리 1969, p. 96)



### 3) 로사리오 기도는 복음적 기도이며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이다.

교황 바오로 6세는 로사리오 기도를 "요약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로사리오 기도는 복음서의 주요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환희, 고통 그리고 영광의 신비를 묵상하고 있다. 환희의 신비에서 우리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육화의 신비와 우리 구원의 시작을 묵상한다. 그리고 고통의 신비에서는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묵상하며, 영광의 신비에서는 성모님 승천에 대한 마지막 두 가지 구원사건을 제외하고는 복음서에 근거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묵상한다. 이렇게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는 로사리오 기도는 어쩌면 구약의 백성들이 시편 150편을 노래하면서,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주신 구원 업적을 기억하며 찬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 4) 로사리오 기도는 단순한 기도이며 관상의 기도이다.

로사리오 기도의 본질적 요소는 마치 성모님이 계속적으로 하느님 구원의 신비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신 것처럼 (루가 2:19, 51),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계속적으로 간직하는 것이다. 반복해서 외우는 주의

기도와 성모송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 반복하여 외우는 기도의 장점은 우리를 단순히 기도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깊은 묵상으로 이끌어 주며 더 나아가 관상의 기도에 이르게 한다. 바오로 6세 교황님은 로사리오 기도에서 관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관상의 요소가 없는 로사리오 기도는 영혼이 없는 육체에 불과하며 기도문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게 될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마리아 공경 47항).

### 5) 로사리오 기도는 사랑과 일치(Communion)의 기도이다.

시편 대신 성모송을 반복하면서 바치는 로사리오 기도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모님께 사랑의 장미를 한 송이씩 바치면서 하느님의 크신 은총을 찬미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레오 13세 교황은 그리스도인 삶의 개혁과 그리스도교의 재 일치를 위한 무기로서 로사리오 기도를 선택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치되기를 원하셨다. 장미라는 뜻의 기원을 가진 로사리오는 성모님의 사랑에 매우 어울린다. 그리고 한 송이 한 송이를 엮어 한 묶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안에 우리 모두는 한 마음 한 뜻이라는 의미와 잘 부합된다. 따라서 로사리오 기도는 공동체적 기도, 특별히 가족 공동체에 잘 어울리는 기도이다. 사랑과 일치를 추구하는 가족이 함께 모여 로사리오 기도를 공동으로 바치는 것이야말로 가정 성화의 지름길이라 확신한다. **M**

참고: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분도출판사, 마리아 뉴스



## 아베 마리아!

전쟁터에서 죽어간 병사의 마지막 유언

1950년 9월 28일! 나는 이날을 평생 잊지 못한다. 남산 위에서는 유엔군이 아래를 향하여, 그 밑에서는 공산군이 위를 향하여 밤이 새도록 서로 총을 쏘아대어 도시 전체가 총성과 불바다에 쌓여 있었다. 공산군의 무시무시한 전차는 마치 먹이를 찾아 다니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고, 나는 귀가 멍고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어찌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상황에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목주를 꺼내어 성모 마리아님께 무엇을 청해야 할지도 모른 채 애절히 탄원하며 기도만 드렸다. 드디어 두려움에 휩싸였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나는 동국대학교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지난 밤 이 곳에서 대접전이 있었는지 유엔군과 북한군의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너무나 처참한 장면을 보면서 침통한 마음으로 앞을 쳐다보던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옆에 있는 몸집이 큰 흑인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오른손은 엄지와 새끼 손가락만 남아 있었고 잘려 나간 손가락의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그의 온 몸을 적시고 있었다. 그런데 그 병사는 천주교 신자인 듯 피투성이로 남아있는 두 개의 손가락으로 목주를 꼭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얼른 무릎을 꿇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귀에 대고 영어로 크게 외쳤다. "나는 천주교 신부입니다! 신부예요!"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듣지 못하고 기쁜 숨을 크게 헐떡이며, 피 묻은 두 손가락으로 오로지 다음 목주알을 집으려고 애쓰는 듯이 보였다. 피범벅이 된 그의 가슴에 손을 대어보니 아직은 따듯했다. 나는 다시 한번 내가 신부라는 것을 큰소리로 말했다. 퐁퐁 부은 그의 오른쪽 눈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성유를 급히 꺼내어 그의 이마에 바르며 십자가를 그어 주었다. 그는 힘겹게 숨을 쉬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만족한 표정을 지면서 두 손가락만 남은 손에 잡고 있던 목주를 들어 나에게 보여주며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간신히 "아베 마리아!" 라고 하더니 피투성이의 손을 가슴 위로 떨어트리며 숨

을 거두었다. 남은 두 개의 손가락으로는 목주를 꼭 잡고 있었다. 나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성스럽고 아름답기까지 한 이 흑인병사의 죽음을 보면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 피 흘리며 죽어간 이 병사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 그가 온몸과 마음으로 당신을 찾고 외친 말을 들으셨습니까? 어머니께서 그 외침을 들으셨다면, 이 젊은이를 당신의 품 안에 받아 주소서! 멀리 떨어진 이방의 나라에서 이름없이 외롭고 비참하게 죽어간 그의 눈에 맺힌 피눈물과 모든 고통과 아픔을 건어주소서!" 나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자세히 그 병사의 몸을 살펴보았다. 그 병사는 세 손가락이 없어지고 남은 두 손가락으로 이제 막 목주기도 4단을 마친 것 같았다. 나는 피묻은 그의 목주를 들고 이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그 병사를 대신하여 내가 대신 "아베 마리아"를 불렀다. 그리고 죽은 병사의 손가락에 목주를 한 알씩 쥐어 주면서 영광의 신비 제 5단을 바치며 남은 그의 목주기도를 끝까지 함께 바쳤다.

"전쟁터에서도 목주기도를 바치면서, 어머니를 부르면서, 최후를 마친 병사는 행복합니다. 비록 그는 손가락이 없어지고 온 몸의 피는 땅바닥을 적시며 홀로 외로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온 정성으로 뜨겁게 어머니를 부르고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죽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몸으로 살면서 죽음의 위기도 없는 우리는 어머니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 흑인병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꾸준히 목주의 기도를 바치게 하소서! 오늘도 목주기도를 바치면 흑인병사의 그 피묻은 목주가 느껴지나이다.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그 흑인병사의 외침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어머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M**  
(피온 글)



## “성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라”

27호의 연결 내용입니다.

문호영 신부 (예수의 성모관상 수도회 지도신부)

### 3) 사람들의 나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라.

일반적으로 열심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호기심에는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이 있다. 우리는 사람들을 나쁘고 무익한 호기심 쪽으로 이끌어 그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선하고 유익한 호기심 쪽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즉, 우리가 호기심을 유발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가진 에너지를 분산시켜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우리들이 제시한 방법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일단은 성공한 것이다. 그 다음은 이기주의를 건드려 호기심 충족을 위해 악을 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만족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목표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 4)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혼합시켜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도록 하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할 때 악한 것이 보여도 그것을 선한 지향으로 포장해두면 괜찮은 것으로 쉽게 착각한다. 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섞어 놓으면 인간의 본성상 악의 큰 부분보다는 미소한 선을 먼저 보게 되어, 결국 전체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잃고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된다. 즉,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더구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와 핑계를 대는데 명수이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매우 효과를 볼 수 있다. 선과 악을 동시에 적당히 혼합시켜 접근하고 악이 드러나지 않도록 선으로 포장하여 유혹하되, 그 속에 들어있는 음흉한 악은 보잘 것없이 생각하게 하여 무시하도록 유도하라. 설령 악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선을 위해서 이 정도는 무시해야 한다' 라는 부정적인 의식을 자꾸 심어주어라. 이 방법은 특히 어느 정도 영성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미 너희들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겠지만, 요즘 세상

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너희들의 경험이 제아무리 풍부하다 하더라도 옛날 경험만으로 나태하게 있다면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그러므로 늘 새로운 경험을 쌓도록 하여라. 사람들의 성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방법이 성공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만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해 본 다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여라.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성공을 거둔 방법이라 할지라도 사용할 때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방법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2차 방법을 준비해 두어라. 필요하다면 3차, 4차 방법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도록 하라.

### 5) 각 부대가 일반적으로 명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하겠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행하는 사람들은 관심에 두지 말고, 그저 한 명 정도만 그의 거동을 살피도록 하여 그가 하던 일을 계속하게만 하면 된다. 너희가 특별히 마음을 써야 할 사람들은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한 명 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두 명이나 그 이상 들러붙어야 한다. 성직자, 수도자 같은 괴수들은 두 명으로도 안 된다. 그 괴수들의 상태에 따라 적어도 세 명 이상 붙어 있어야 한다. 어떤 성직자나 수도자들에게는 특별 지원부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수부대 중 일부는 각 성당과 수도원, 신학교, 기도원 주변에서 늘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계략과 속임수를 써서 성소자들이 성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성당과 기도원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도록 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자꾸 방해하여라.



##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여라

정예부대의 임무는 막중하다. 너희들이 이러한 사람 하나를 맡은 것은 일반 사람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나아가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맡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각별히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너희들의 임무는 나중에 따로 불러놓고 말하겠다. 최정예 부대는 늘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나의 직속지시를 따른다.

### 6) 한가지 공지사항이 있다.

우리는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아이들에게 접근했다가는 큰 일난다. 또 마음이 참으로 겸손한 이들에게도 접근하지 말아라. 이들에게는 우리를 보기만 하면 여지없이 전멸시켜 버리는 성모 마리아가 겸손한 그들을 보호하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다. 공연히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7)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세상에 인간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휴식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에게는 그 영혼들을 멸망시키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우리가 제시한 유혹에 빠져 고통받는 그들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휴식이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실은 우리 스스로 그 길을 택한 것이지만) 이후, 휴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되었다.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너희들이 경험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유혹하고 분열시키는 너희의 임무를 있는 힘을 다해 수행하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세상에 인간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에게 휴식은 없음을 명심하여라. **M**

## “파티마 성모님 메세지 전파를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에 다 함께 참여합시다”

“사람들이 나의 요청에 귀 기울인다면... 평화가 올 것이다.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파티마 세계 사도직 미주 한국부에서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 "파티마 성모님의 메세지 전파 (기도, 희생, 봉헌)를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을 봉헌합니다.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이 승리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성모님의 성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시대의 미래를 위해 "100만단 묵주기도 봉헌"에 필요한 봉헌카드나 셀(Cell)기도회 창단을 원하시는 분들은 파티마 세계 사도직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 관 : 파티마 세계 사도직 미주 한국부
- 지도신부 : 이종하 스테파노
- 기 간 : 2005년 9월 8일부터 2006년 까지
- 문 의 처 : 파티마 세계 사도직 미주 한국부  
서부 평의회 회장 한만수 (323-819-1285)  
홍보부 원종휘 (818-468-8931)  
김근선 (213-700-3905)  
김국성 (714-343-4771)  
서안나 (562-484-0646)



## 성모 마리아처럼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그분은 우리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거기, 침묵 속에서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대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침묵 속에서 들으십시오. 마음의 고요 속에 그대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대의 마음은 이미 하느님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명상이나 고행을 하는 많은 수도자들은 줄곧 사막, 숲, 산의 깊은 고요와 정적 속에서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40일 동안 사막에서, 밤의 침묵 속에서 길고 긴 시간 동안 당신 성부와 함께 친교를 나누셨습니다. 공동체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우리는 어떤 특정한 기간만이라도 깊은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닌 책, 생각, 기억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과 함께여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온전히 벗어나 그분의 현존, 침묵, 비움, 희망, 동요되지 않는 고요함 안에 사랑스럽게 머무는 것입니다. 야단스럽게 법석을 떠는 곳에서는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연 안에서도 우리는 침묵을 발견하지요. 나무와 꽃과 풀들은 침묵 속에 자라납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해도 침묵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디서나 마음의 고요가 필요합니다. 문을 닫을 때, 다른 이가 그대를 필요로 할 때, 지저귀는 새들, 피어나는 꽃들, 그리고 동물들의 움직임에서조차 그대는 마음의 고요 속에서 하느님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른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침묵 안에서 그분은 우리

마음의 침묵 안에서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침묵 안에서 그대가 하느님을 뵈고자 할 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그대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겠지요. 그대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 '비워짐'을 깨닫게 될 때만 하느님은 당신 자신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기도하는 영혼은 깊이 침묵하는 영혼입니다.

현재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사제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은 하루 종일 하느님에 대해 이야기하시니 얼마나 그 분과 가까우실까요!" 그 사제는 내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론 하느님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분을 향한 말은 적게 하는 것 같군요. 좋은 말을 꺼내 놓기에 급급해서인지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 듣는 시간은 잘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요 속에서만 하느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자신이 내적, 외적 침묵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감히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침묵 안에서만 우리는 참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하느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침묵은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



"어제는 가버렸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를 들으십시오. 침묵 안에서 그분은 우리 영혼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침묵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혜를 지닙니다. 참된 내적 침묵을 가능하게 하려면 꾸준히 노력하십시오.

### 눈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영혼에 방해가 되고 죄가 될 뿐인, 타인의 결점 찾기를 그만두고 하느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만을 찾으십시오.

### 귀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타인의 험담, 소문을 실어나름, 무자비한 말들처럼 인간 본성을 타락시키는 일체의 모든 소리에는 귀를 막으십시오. 항상 하느님의 음성에, 그대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 혀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칙칙한 어둠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모든 말과 알파

한 자기 변호를 삼가고, 우리에게 평화, 희망, 기쁨을 가져오고 마음을 밝혀주는 생명의 말을 함으로써 하느님을 찬미하십시오.

### 지성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거짓됨, 산만한 정신, 파괴적인 생각, 타인에 대한 의심과 속단, 복수심과 욕망에 매이지 말고 하느님의 경이에 대해 깊이 관조했던 성모 마리아처럼 기도와 묵상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진리에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 마음의 침묵을 지키십시오

온갖 이기심, 미움, 질투, 탐욕을 피하고 온 마음과 영혼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최선의 성실을 다해 마음의 침묵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나는 그분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가난한 이들 안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온 마음 다해 위로해드리겠습니다. **M**

발췌 / 마더 데레사의 따뜻한 마음에서

## 너희는 이 세상 땅 끝까지 나의 복음을 전하라.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는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체험을 전해주는 좋은 선교도구입니다. 교회를 떠나 냉담 중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전해주세요. 또는 그분들의 주소를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미 국 : 남그레고리오 (610-965-6168)

캐나다 : 이준용 콜베 (403-288-0469)

한 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허안젤라 (017-785-3535)

##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965-6168. Fax : (610) 965-6179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발행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 (서울 옥수동 성당 주임)

자문위원단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윤종식 신부,

웨이인 와이블, 남기옥 마르타(선교학 박사)

편집위원 : 장혜영, 오영숙, 양의현, 송시원,

남미자, 이해인

인쇄 :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사

### 너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 슬라브코 바바리치 신부 프란치스코수도회  
역자 김 훈 올리아노  
캐나다 밴쿠버 한인 성당 평화의 모후 기도회 회장

#### 제 2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서 묵상 요한 19 : 17 예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손에 넘어가 목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을 나가 히브리말로 골고타라는 곳으로 향하셨다. 골고타는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이사야 53 : 4, 6, 7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앓아 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 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느님께 매를 맞아 박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마태오 16 : 24, 26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묵상 기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자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체적으로 모진 매를 맞아 온몸이 찢기고 헤어져 상처로 덮였고, 기진맥진한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저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는 저의 십자가를 여러 번 벗어 던지며 안일 무사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제게 맡겨진 사랑과 인내의 십자가를 회피했고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했기에, 이기심, 증오, 질투가 있는 인간이었고 참을성 없고 조급한 성격에 화를 내며 사는 인간이었습니다. 때로는 이웃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독자적 판단과 행동으로 남에게 무거운 십자

가를 지게 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슬프게 만드니 죄인을 용서해주십시오. 이제 저도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치 않고 기꺼이 지려 하오니 받아주소서. 지금, 저는 현재와 과거에 원수처럼 생각하던 사람, 보기 싫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자 합니다. 제게 무거운 십자가를 맡겨 짓누르고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저의 약점과 잘못을 들추어가며 저를 모욕하고 깊은 상처를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 이들 모두를 용서합니다. 아직 제 마음에 용서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지금 성모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도와 주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의 전구와 더불어 주님께 간청하오니, 제게 맡겨진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힘과 은총을 내려주소서. 또한 이웃이 겪고 있는 온갖 질병과 고통을 사랑으로 참아 받을 수 있는 힘과 은총을 주소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 저에게 맡겨진 모든 고통을 참아 이겨낼 것을 다짐합니다.

#### 《사랑하는 자녀들아!

성 십자가를 현양하는 이 시기에, 십자가의 축제를 지내면서 너희가 진 십자가가 기쁨으로 변화되길 희망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에게 특별히 요청하니,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고통과 질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꾸준히 기도하라. 오직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치유의 은사를 너희에게 기꺼이 베풀어줄 수 있단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1986. 9. 11)

성모님! 나약한 믿음을 가진 저를 늘 깨우쳐주소서. 제 옆에 언제나 함께 계시어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 3처로 가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 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M**



## 내가 이런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

김기수 신부  
맨하튼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한인 천주교회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문위원

강가를 따라 조금 올라가니, 강 한복판의 물살이 세게 흘러 물이 얼지 않은 곳에 북한 아주머니들이 모여 와서 빨래하는 모습이 보였다.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 가는 사람들도 많은걸 보니 식수사정이 얼마나 나쁜지 짐작이 된다. 영하 20도는 될 것 같은 추위에 더운물도 없이 차가운 얼음물에 몇 시간씩 손을 담그고 있는 아주머니들의 모습은 참으로 북한의 비참한 실정을 절실히 말해주고도 남는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손발이 뾰뾰 얼어오는데, 더구나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다니... 그래도 북한 아주머니들은 방망이를 힘차게 두드리며 씩씩한 모습을 잃지 않는다. 얼음이 얼지 않은 곳에는 북한보다 중국 쪽에 더 가까운 곳도 있다. 북한 아주머니들 옆에는 중국 쪽에서 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구경을 하고 있는 것인지 누구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 옆에는 북한의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기관총을 메고 아주머니들 걸을 지키고 서있다.

현수와 바오로와 나는 그들 가까이로 가서, 현수는 비디오 카메라를 몰래 숨겨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어느 정도 알아차린 것 같다. 북한 아주머니들은 우리를 결눈질로 계속 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강 한복판 얼음 위의 북한 구역을 넘나들며 걷기도 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북한 아주머니들의 빨래도 하고 물을 길어 가는 새로운 모습을 보았지만 두만강 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다. 중국 쪽에는 경비병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두만강 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국경경비에 너그러운 것 같다. 우리는 점심도 거르고 하루 종일 압록강 주변을 걸으며 북한 사람들의 모습과 움직임을 하나라도 더 보려고 애썼다.

항상 그렇지만 오늘도 북한 사람들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니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슴이 답답해온다. 오

후가 되도록 말없이 걷고만 있던 나는 현수에게 이런 모습을 보니 어떠냐고 물었다. 현수는 눈을 커다랗게 뜨면서 '북한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기쁘다.'고 대답하였다. 내가 슬프지 않느냐고 하니 현수는 슬프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바오로는 '마음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슬프기도 하다.'고 대답하였다. 세대 차이인가? 나도 현수처럼 저렇게 단순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 내가 쓸데없이 우리 민족에 대한 일에 항상 마음 졸이며 긴장하고 슬프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런다고 무엇 하나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오래 걸었고 신발도 발에 잘 맞지 않아 다리가 많이 아프다. 오후 3시가 다 되어서야 고생 끝에 어제 저녁에 갔던 식당을 찾아 감자떡 몇 개를 먹고, 다시 강 아래쪽으로 걷기 시작하였다. 얼지 않고 있는 강 아래쪽은 중국 쪽에 아예 맞닿을 정도로 더 가까워서인지 더 많은 아주머니들이 와서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 주위에는 기관총을 든 북한 국경경비대 몇 명이 북한 아주머니들을 지키고 있었다.

중국 쪽에서 남녀 몇 명이 강으로 내려가서 빨래하는 아주머니들 주위를 둘러쌌다. 현수와 나는 숨겨둔 카메라로 사진과 비디오를 계속 찍었다. 그 때, 중국 쪽에서 간 아저씨 한 분이 북한 쪽에서 온 아주머니에게 무슨 보따리를 건네주려고 하다가 북한 경비병에게 발각되었다. 경비병이 북한 아주머니를 끌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난 아저씨가 경비병에게 막 욕을 하면서 싸움을 벌였다. 아마도 중국에 살고 있는 오빠가 북한에 살고 있는 여동생에게 무엇을 전해주려고 했던 것 같다. 경비병들이 그 아저씨는 중국 쪽 사람이므로 체포하지는 못하고 북한 아주머니만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은 더욱 슬프고 답답해왔다. M



## 메주고리예는 하나님 없이 살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주교, 몬시뇰 피어스 레이시

85세의 몬시뇰 피어스 레이시 주교는 2002년 10월에 캐나다 순례자들과 함께 두 번째 메주고리예 순례를 다녀왔다. 다음은 메주고리예가 파티마의 연속임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하는 레이시 주교님의 메주고리예 체험담을 적어본다.

나는 1987년, 메주고리예에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것이 지금보다 무척 소박했었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성모님과 성령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사람들의 삶에 큰 힘을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되어 삶이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순례자들의 고해를 듣다가 그만하고 나오려 하자,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를 다시 고해소로 되돌아가게 했다는 한 사제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마음껏 체험하고 싶다면, 이렇게 수 많은 사람들의 고해성사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에게서 바로 이것이 메주고리예입니다.

내가 토론토에 있었을 때, 80여명의 캐나다 주교님들이 교황님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티칸에서 오신 몬시뇰도 몇 분 있었는데, 그 중 누군가가 '메주고리예'라는 말을 언급하기에 내가 "당신은 메주고리예를 믿습니까?" 하고 물었으나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 메주고리예를 다녀갔고, 눈먼 장님들도 이 곳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교황님께서 저기 앉아 계시는데, 성하게서도 메주고리예를 믿으시니 직접 물어보시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은 단지 그분의 사적인 견일 뿐이요." 하더군요.

나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주고리예가 비방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우리들을 보시고도 참고 계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발현을 믿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신념과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모범을 보일 수는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자유이지만, 그분은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당신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를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지난 시간에 대한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메주고리예의 기본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2년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가 원죄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메주고리예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메주고리예는 하나님의 오아시스이며, 교회가 가져야 할 생명력을 지닌 모범적인 곳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메주고리예의 힘입니다. 종교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 방황하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이 우리 사제들의 본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메주고리예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성지들도 가보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메주고리예는 찬란히 빛나는 빛으로 우리 교회를 비추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M**



## 메시지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발현 목격자 비스카와의 인터뷰



성모님 발현에 대해 당신에게 가장 인상 깊은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시시오.

글쎄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성모님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처음 그분을 뵈었을때 만큼이나 경이롭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고 오시는 성모님을 뵈는것은 정말 경이롭지요. 그리고 이 년 전에는 성모님께서 성 금요일에 예수님과 함께 오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찢겨졌으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나는 너희를 위해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기예수님과 죽음 전, 수난을 겪으시는 순간의 예수님을 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 발현하실 때의 모습이나 역할에 대하여 당신이 보고 체험한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성모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세 번의 빛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성모님이 오신다는 신호입니다. 그 분은 하얀 베일을 쓰시고 머리에는 별이 있는 왕관을 쓰고 오십니다. 성모님의 눈은 파란색이고 머리는 검은색이며 뺨은 장미빛입니다. 그 분은 구름 위에 떠 계시며 땅은 밟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과 같은 큰 축제일이나 성모님의 생신에는 황금색 가운을 입고 오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과거에 있던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현대 여성으로 보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마치 현재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비스카, 당신에게 있어서 발현산, 십자가산, 성당등은 어떤 의미입니까?

발현산은 성모님께서 처음으로 발현하신 곳이고 저에게 있어서는 제 마음의 첫 자리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산은 보속과 회개의 십자가의 길이며 갈바리산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모임그룹이 십자가산에 모였을 때 성모님께서 그곳에 오셨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성당 또한 특별한 곳인데 성모님께서서는 미사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사는 모든 기도의 위에 있는 왕관입니다.

성모님의 발현을 통하여 당신이 배운것은 무엇이며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모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것은 없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이곳에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그분의 메시지를 멀리하고 잠들어 버린 우리를 깨우려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서의 말씀을 새롭게 인식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모님께서서 발현의 열매 혹은 메시지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많은 열매가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성모님께서서는 결코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달려있는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믿게 하려고 오신것이 아닙니다.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믿을 것이고, 원치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에 어느 때는 "기쁘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는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가장 그분을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합니까?

성모님께서 매달 25일에 마리아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거론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성모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으면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마리아를 통해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듣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우리가 당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성모님의 메시지인 회개, 기도, 보속으로의 부름에 응답했다고 보십니까?**

성모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지만 곧 지쳐버리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선 우리가 마음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한 걸음씩, 꾸준히 앞으로 나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에 모든것을 하려하면 순식간에 모든것을 그만두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점차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기도와 함께 조금씩 메시지의 뜻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쉽게 지치지 않을것입니다. 물론 마음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이 점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모님께서 "3번의 묵주기도를 드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한번에 3번의 묵주기도를 다 드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처음 발현하셨던 때의 사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적어도 일곱 번의 주의 기도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시고는 저희가 그 기도를 다할 수 있을 때 "환희의 신비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자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신비를 드리도록 말씀하셨고 일년이 지난 후, 영광의 신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급하게 시작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모님이 발현하시기 시작하신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성모님께서 말씀하신대로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15단의 묵주기도를 드리십시오"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변화되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메시지를 듣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모든것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느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당신께 가까이 인도하시기도합니다.

**평화의 모후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것을 가장 원하십니까?**

묵주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성모님께서 모든 기도는 사랑과 선함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는 묵주기도를 해야한다"고 하시며, 우리가 기도 중 암송하고 있는 단어에 대한 묵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하기 전과 같이 공허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묵주를 들고 세 가지의 신비를 다 기도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쩌면 오히려 더 공허한 상태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얻어지는 것은 아

무것도 없습니다. 성모송 한번을 하더라도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것이 목상이 없는 십오 단의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성모님의 발현을 통해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했으며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믿음은 위대한 선물이며 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매일 하느님께 기도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의미 없는 말이 되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강하게 믿는가 하는것은 자신들 삶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에 열매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처음 성모님께서서는 발현 초기에 당신과 다른 목격 증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표징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그것과 관련하여 달라진 사항은 없었나요? 정말 그 표징이 주어질까요?**

네, 그 표징은 정말 주어질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성모님께서 주신 세 번째 비밀과 관련된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이곳 발현장소에 영원히 남을 표징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구적인 것이며, 볼 수 있으나 없앨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떤 표징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한번 그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발현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표징이나, 기적 같은 것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런 것 들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더욱 기도하게 하면서 내적 변

**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가 돌고, 십자가 산이 바뀌고, 목주 색이 변하는 등의 기적에 대해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서는 그것은 단지 작은 표징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이 바뀌어 마음이 변화되는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작은 표징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변화될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표징자체에 큰 의미를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 해야할때가 되었으므로 표징이 주어졌다는것을 아셔야합니다.

**오늘날의 삶의 방식과 성모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맞추어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매우 빠른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생활의 속도를 좀 줄여야합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그 속도로 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아무곳에도 도달하지 못할것입니다. 계속 이것을 해야해, 저것을 해야해 하고 바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의 뜻은 어디든지 있으며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자신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잃고 마치 자유를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만일 자유를 원한다면 좀더 여유를 갖고 메시지를 살아 갈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M**

발췌: [www.mejugorje.org](http://www.mejugorje.org)



##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성체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대사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찬미와 기도를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은총과 치유의 성 시간

매월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성모 신심 미사 및 성시간

장소 및 문의 : 서울 옥수동 성당 (02-2297-2038)

신경남 신부님의 주례로 목주 기도와 거룩한 미사, 성체 강복 및 치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손을 잡고 ...

이태리 신학생, 마누엘 리아토의 체험담

마누엘 리아토(23세)는 이태리, 토리노에 있는 신학교 학생이며 여러번 메주고리를 방문하였다. 그는 메주고리에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은 곳이라고 말한다. 그는 메주고리에에서 성모님의 메시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그 메시지가 전 세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마누엘 리아토는 태어나서부터 휠체어에 앉아 살아가고 있지만 성모님의 메시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신부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 갔다. 지금은 신학생이된 마누엘은 메주고리에서 하느님을 체험한 후 변화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제가 메주고리에에 처음 온 것은 열 살이 되던 1990년이었습니다. 이 곳에서 저는 성모님의 현존하심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그때는 제가 크로아티어를 할 줄 몰라서 이곳의 모든 프로그램을 따라 할 수는 없었지만, 프란치스코회 신부님들의 활동과, 특히 저녁 기도 프로그램들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 메주고리에 순례를 마친 후에도, 저는 이곳에서 배운 것처럼 계속 기도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묵주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금요일에는 메주고리에 본당에서 하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치유기도를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메주고리를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 전쟁 중이던 때를 포함하여 매년 이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전쟁 중에는 물론 걱정도 있었지만 메주고리를 가고 싶은 제 마음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전쟁 중에 순례를 하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슬라브코 신부님께서 폭탄의 위험이 있으니 산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가장 먼저 산에 올라간 분이 바로 슬라브코 신부님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저도 그분을 따라 산을 올라가며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마음으로부터 "두려워마라. 내가 여기 있다."하는 목소리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모님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

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말입니다. 이것은 메주고리에에 대한 체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매번 이곳에 올 때마다 하느님께 대한 저의 체험과 기도는 깊어졌고 성시간을 통해 기도가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대화임을 배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돌아가신 슬라브코 신부님은 저의 모델입니다. 제가 성소로의 부름을 느꼈을 때 저는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이 또한 제가 매년 이곳을 방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곳에 올 때마다 저는 성모님께 저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모님께서 언젠가 저를 도와주십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주고리에에 와서 성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성모님, 만일 당신이 정말 제가 사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신학교에 가기위한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일년 후에 저는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성적의 입학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 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저에게 공부를 할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 성모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1997년에 저는 성모님께 크로아티어를 가르쳐 달라고 청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모님과 메주고리에의 교회, 혹은 사람들에게 대한 소식을 이태리어로 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우선 강론을 이태리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사람들과 신부님들께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메주고리에서 배우는 것들은 전혀 새롭거나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젊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께 온 삶을 의탁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이곳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2001년 저는 인터넷에서 이태리어로 "메주고리에 정보" 라는 사이트를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등록하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크로아티어를 한다는 것을 알자 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에 대한 것을 이태리어로 번역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많은 것을 저에게 주신 성모님께서 봉사하라고 주신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크로아티어로 되어 있는 메주고리에 소식들을 접하는 대로 이태리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리스트는 점점 늘어났고 그룹은 커졌습니다. 이 봉사는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며 메주고리에의 기사를 번역 할 때는 마치 제가 메주고리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리아 사랑"이라는 모임은 우편 리스트가 생기기 전에 있던 모임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 기도모임을 만들자는 생각에서 나온 모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성모님의 메시지에 대한 묵상을 나눕니다.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기도 지향을 나누고 그 기도 지향들을 메주고리에의 공식 홈페이지에 보냅니다. 우리는 가끔씩 직접 만나기도 합니다. 메주고리에서 매년 열리는 젊은이의 축제에서도 여러명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비록 태어나면서부터 휠체어를 의지해야 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하느님에게는 무엇이든 가



능하다." 이 곳에서 성모님께서 하느님께서 전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제가 장애자로 살아 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저는 이곳 메주고리에서 성모님의 중재하심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메주고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살아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모든이들에게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 분께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 분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며, 당신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전 세계인들에게 당신을 모범이자 징표로 보이고 싶어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을 때에는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어머니이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메시지가 진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과 현존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 가기를 바라십니다. **M**

- 발췌: 메주고리에 공식 홈페이지 [www.medjugorje.hr](http://www.medjugorje.hr)

## 어머니께 드리는 작은 정성



권희선 글라시아  
방배동 성당

나는 혼인성사를 받기 위해 세례를 받고 10여 년 동안 나름대로 성당을 다니기는 했지만, 나의 신앙은 항상 초보수준이었고 피정이나 성지순례라는 말들은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특히 메주고리에는 열심이신 분들만 가는 곳이지, 나 같은 사람은 엄두도 못 내는 곳이라 생각했다. 물론 그 동안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손길은 느꼈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하며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날 성모님께서는 언니를 통하여 메주고리예로 불러주셨다. 나는 언니에게 손목이 잡혀 가겠다고는 했지만 일상을 떠나 여행간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출발했다.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공항에 갔는데 순례 인원이 103명이라는 소리에 놀라,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비행기에서 내려 로마에 도착한 다음날 우리는 바로 성인의 순교지에서 첫 미사를 드렸다. 평화의 모후 음악선교단의 음악과 함께하는 미사는 너무나 아름다웠으며, 걱정스러웠던 많은 인원들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졌다. 미사 중에는 귀를 대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라있었다던 트레폰다(바로로 성인이 참수 당하실 때 목이 세 번 떨어졌던 곳)에서 갑자기 물이 팔팔 흐르는 기적도 일어났다. 로마와 아씨시, 오르비에타 성지에서 드린 모든 미사는 마치 성모님께서 우리를 치마폭에 감싸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았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드려왔던 어떤 미사보다도 은혜로웠다. 아름다운 드브로브닉에서 성모님이 주신 휴가를 편안히 보내고, 드디어 일요일 저녁에 손꼽아 기다리던 메주고리예로 들어갔다.

도착한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한국어 미사를 드리고 평화의 오아시스 공동체로 가서 수사님의 체험담을 들

으며 다같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을 흘렸다. 저녁 예절 후에는 성모님의 발현이 있는 청십자가로 갔다. 발현 목격자인 이반이 인도하는 월, 금요일 평화의 모후 기도회에는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데, 우리는 두 번 다 참석할 수 있었다. 2시간 전부터 가까운 자리를 맡기 위해 달려갔으나,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 그 앞에까지 가지는 못했다. 성모님께서 오시는 시간에는 약 5분에서 10분 가량 침묵이 흘렀고, 이반이 받은 메시지를 각국의 통역하는 사람들이 각 나라말로 전했다. 나는 책에서 본 것처럼 하늘에서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 계속 하늘만 보았었다. 그러나 결국 아

무것도 보지 못하고 청십자가를 내려왔지만, 웬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며 성모님이 다녀가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날 미사 후 이반을 만났다. 이반은 신학교에 들어가 사제가 되려고 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반에게 성모님께서는, 사제가 되어도 좋은 사제 중의 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가정을 꾸려도 좋은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다고 한다. 나는 인생이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가는 것이고 하느님을 따르는 삶이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하느님을 율법에 가두고 무서운 분, 내가 잘못하면 벌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분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고 내가 다른 길을 가도 축복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시다. 무, 배추가 서로 쓰임이 다르듯이, 우리 각자가 다른 방법으로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해졌다.



나는 마치 유치원생처럼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도 많았다. 마치 글을 모르던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모든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예식들이 새롭기만 하였다. 또한 내가 궁금해 하는 것들을 미사와 기도, 말씀 중에 응답받아 너무나 기뻐고, 하루하루를 평화로운 속에서 보냈다. 성시간에 졸다가 문득 성체를 바라보았을 때에는, "내 품에서 실컷 자다가 가려무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느껴졌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동안 나는 형식적으로만 그 분을 대해 왔음을 깨달았다.

발현산에서는 순례자들이 보속하는 마음으로 신을 벗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나도 벗어 보았는데 가끔 뽕 쪽한 것이 발에 밟힐 때는 아프긴 했지만, 오히려 무거운 신발이 없으니 너무 활기차고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세속적인 것이 오히려 벗어 던지면 이렇게 시원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더 쉽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침 내 찌뿌두두하던 나의 몸이 날아갈 것 같아 가벼워졌다.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하나 둘씩 가르쳐 주시며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

순례 마지막 날에는 섬섬한 마음으로 엄마 곁을 떠나야 했다. 메주고리에의 마지막 미사에서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에는 모든 형제자매님이 내 친형제자매처럼 느껴지면서 다른 분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다가왔고 내 안에 사랑이 넘쳐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며 마음은 너무나 평화로워졌다. 내가 느끼는 이런 평화를 내 남편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내가 아

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 이것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나마 나는 천국을 살며 맛본 것 같다. 메주고리를 나올 때 어느 분이 예쁜 구슬목주팔찌를 주셨다. 당신 아들이 많이 아프다가 치유되어서 감사하는 맘으로 만드셨다고 했다. 그 순간 내 머리 속에서는 나도 이것을 만들어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후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모님께서는 평소애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것을 워낙 좋아하는 나에게 이렇게 봉사하라고 하시나보다. 그래서 나는 요즘 기쁜 맘으로 예쁜 목주팔찌를 만들고 있다. 물론 작은 정성이지만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메주고리를 알게 되고 목주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모님을 느끼게 된다면 나는 너무 행복할 것이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상 생활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짓기도 하고 화도 내며 평화를 잃을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번 순례를 통해서 평화를 다시 찾는 방법을 성모님께 배우고 왔기에 앞으로의 나의 삶이 두렵지 않다.

"온 세상 곳곳에서, 어머니여, 자녀들이 어려운 일 가슴에 안고 먼 길 떠나 왔나이다. 굽어보시어 위로와 사랑의 손 없어주소나를 위해 우리 주께 평화의 모후 빌으소서."

메주고리에 본당에서 입당성가로 부르는 이 노래처럼 우리 모두가 삶속에 있는 모든 힘든 일을 우리 어머니신 성모님께 맡기고 그분의 품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하느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 질 것을 굳게 믿는다. **M**

## 돌리고 또 돌리지 뭐

어머니의 개종과 목주기도

신세실리아  
퀸스 성당

우리 친정어머니는 금년 80세이시며 평생을 개신교 신자로 늘 하느님과 가까이 살아오셨다. 교회에서 권사 직을 맡고 계시던 어머니는 언제나 성경을 곁에 두고 읽으시며 이른 새벽이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다. 어머니는 딸과 같이 지내기 위하여 1998년, 미국에 오긴 하셨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시간 기도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시던 어머니에게 딸 부부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부족해 보여서 늘 안타까워 하셨다. 개신교에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성모상 앞에서, 더구나 절에서 쓰는 염주 같은 것을 들고 기도한다고 하니 권사님이 보시기에 이걸 크게 잘못된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것이다. 성모상 앞에 앉아 목주기도를 하는 우리 부부의 우상숭배(?)를 볼 때마다, 어머니는 속이 상하셔서 못마땅한 얼굴로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시곤 하셨다. 남편과 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기에, 말 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천주교의 신앙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모님을 알리자고 했다. 특별히 성모님께 대한 믿음이 두터웠던 남편과 나는 매일 54일 목주 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께서 친정어머니를 인도해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

어느 날 남편은 전에 개신교 목사님이셨던 분이 성모님을 알게 된 후 천주교로 개종한 신앙간증 체험담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와 어머니께 드렸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으셨는데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테이프를 보시고 난 후, 나에게 목주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하셨다. 테이프에서 말하는 그분은 개신교에서 당회장이라는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갖고 있던 분인데 개신교는 삼위일체를 믿고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우상숭배 교회라고 지탄하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분이, "하느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성

령이 너에게 내려 오시어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으니 성모 마리아는 분명히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성령, 예수님을 온 몸으로 모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성서에 나와 있다. 더구나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알면서도 '이 몸은 주님의 종이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순종했다. 만약 그때 마리아가 '그러면 나는 죽게 되니 못해요.'라고 요즘 사람들처럼 하느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천사까지 보내신 하느님께서 얼마나 곤란하셨겠는가? 그러나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하느님께 순명하여 예수님을 낳으셨으니, 마리아와 함께 목주기도를 하면서 청하는 기도는 하느님도 거절하지 못하시는 강력한 기도다.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목주기도를 배우면서 성모님께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신 어머니의 손에는 항상 목주가 들려 있다. 나는 "엄마,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말보다는 하느님을 얼마나 믿고 사랑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서에도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지요."하자, 어머니는 "그렇지.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주니?"하고 물으셨다. 나는 목주기도를 할 때 그 모든 지향을 함께 해도 된다고 가르쳐 드리며, "우리도 예수님께 많은 청을 하면서 기도해요. 매일 미사와 영성체 시간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내 몸에 모시고 힘을 얻을 수 있지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모 마리아의 중재의 힘을 믿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분은 네 어머니이시

##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라는 예수님의 유언을 나는 지키지 않았구나....

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설사 우리들의 기도가 부족하더라도 성모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선으로 이끌어지리라 믿는거죠. 특별히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성서에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낳으시고 십자가 길의 고통을 함께 받으신 어머니가 함께 청하는 기도를 어떻게 소홀히 하시겠어요? 더구나,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믿고 맡기실 정도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데, 우리와 함께 기도 해주시면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묵주기도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로 시작해요. 성모송은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가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반갑게 맞이하고 두분이 하느님을 찬미하며 나누던 대화를 기도문으로 만든 것이지요. 이것은 천주교와 개신교 성서 모두에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도 그분들 처럼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기도예요." 하고 말했다. 또한 기회가 있을때 마다 지금껏 얼마나 많은 묵주기도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정에 있었는지 말씀드렸다.

워낙 철저하게 기도의 힘을 믿는 어머니는 나의 체험을 들으시고 성모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이해하신 후부터는 언제나 묵주를 들고 기도하시게 되었다. 어머니는 "사람이 자기 부모를 잘 모셔야 한다는 것은 십계명에 새겨주신 하느님의 말씀이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 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구나.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한 것으로 마리아의 역할을 다한 것이

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니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늦게나마 알게 되어서 참 기쁘다. 우리가 삼위일체가 임하신 마리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당연히 예수님의 신성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못박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하시며 그 동안 성모님을 모르고 살아 온 시간들을 안타까워하셨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묵주기도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고 감사드린다. 어느 날 남편이 열심히 묵주기도를 하고 계시던 어머니에게 짓궂게 물어 보았다. "어머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묵주기도를 하시고 나서 남은 시간은 뭐 하세요?"하고 묻자, 어머니는 묵주를 들어 보이며 "돌리고 또 돌리지 뭐!" 하셨다.

그 후, 2004년 9월 19일 버지니아의 정바로로 한인성당에서 어머니는 '안나'라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받으셨다. 지금은 성모님의 군대인 레지오 마리아의 협조단원으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다. 어머니는 지금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 "아니 천주교는 기도가 없는 교회인 줄 알았더니 웬 기도할 게 이렇게 많으나? 내가 요즘은 기도만 하다 하루가 다 지나간다. 그리고 전에 성체 성사를 몰랐을 때에는 영성체를 영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한국에 있는 식구들도 성모님 앞에서 함께 기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오늘도 어머니는 모든 교회가 하루 빨리 성모님의 역할을 올바르게 알고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묵주를 들고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기도를 하신다. **M**



## Message of September 25, 2005

"Dear children! In love I call you: convert, even though you are far from my heart. Do not forget, I am your mother and I feel pain for each one who is far from my heart; but I do not leave you alone. I believe you can leave the way of sin and decide for holiness.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 **THE ORIGIN, PURPOSE, AND POWER OF THE ROSARY**

"You have invoked me by various titles and have always obtained favor from me. Now, since you have called me by that title so pleasing to me, 'Queen of the Holy Rosary', I can no longer refuse the favor that you ask: for this name is most precious and dear to me. ...."

These words were spoken by Our Blessed Mother, in 1884, during an approved apparition of Our Lady, which occurred in Naples, Italy. It was in the house of Commander Agrelli where Our Heavenly Mother deigned to make known the manner in which she loves to be invoked. For 13 months, Fortuna Agrelli, the daughter of the Commander, had endured dreadful sufferings and tortuous cramps. She had been given up by the most celebrated physicians. On February 16, 1884, the afflicted girl and her relatives began a novena of Rosaries. The Queen of the Holy Rosary favored Fortuna with an apparition on March 3rd. Mary, sitting upon a high throne, surrounded by luminous figures, held the divine Child on her lap, and in her hand, a Rosary. The Virgin Mother and the Holy Infant were clad in gold-embroidered garments. They were accompanied by St. Dominic and St. Catherine of Sienna. Mary looked upon the sufferer with maternal tenderness. The patient saluted her with the words: "Queen of the Holy Rosary, be gracious to me; restore me to health." It was on this occasion that the Mother of God made it known the manner in which she loves to be invoked, and the title she holds as precious and dear to her: "Queen of the Holy Rosary."

At Fatima, each time Our Lady appeared, in 1917, she said, "Pray the Rosary every day." She promised to give her name in October when she would perform a miracle so that all may believe. And when she performed the miracle of sun-a miracle foretold to the exact hour and by upwards to



the spinning of the months in advance as day- it was witnessed 100,000 people. Our Lady then gave us her name. She said, "I am the Lady of the Rosary. Continue to say the Rosary every day." The heavy rains had fallen through the night and the morning until noon, true sun time. I have met more than one person who was there that day and hour, and witnessed the rain stopping instantly. The clouds then rolled back in a matter of seconds. Besides the miracle of the sun - there was the miracle of complete dryness to everything when the spinning of the sun and its descent in three phases were concluded. All took about ten minutes. This miracle was "so that all may believe" and respond to Our Mother's request to pray the Rosary daily and properly. When Lucia

remembered to ask requests that people had asked her to make of Our Lady, the beautiful Lady from heaven would say "They must first amend their lives" or "It is necessary for each person to say the Rosary in order to obtain the graces during the year."

*Let us review the origin of how the Rosary came*

## **Origin of the Rosary**

*about:*

The origin of the Rosary is most interesting. From its early days, the Church urged its faithful to recite the 150 Psalms of David from the Bible. This custom still prevails today. Priests and consecrated religious are obliged to pray the Liturgy of the Hours (Divine Office) each day which consists of a large measure of the Psalms of David. In former days, before the printing press, it was not easy for anyone to memorize the 150 Psalms, and hand inscribed scrolls of Scripture were a rarity. The people who could not learn the 150 Psalms by heart, wanted to do something to make up for it. So they substituted 150 *Hail Mary's*. They broke up these 150 *Hail Mary's* into 15 decades, or series of ten. Each 10 *Hail Mary's* were said while meditating on different aspects of the life of Our Divine Lord. We call them the mysteries. To keep each decade separate, each series of 10 began with the Our Father and ended with the doxology or the *Glory Be* in praise to the Blessed Trinity. They would meditate on a mystery of Jesus Christ for the length of



time it took to say 10 *Hail Mary's*; transporting little stones or beads from one pocket or hand to the other.

St. Dominic, who died in 1221, received from Our Blessed Mother the command to preach and to popularize the Rosary for the good of souls, conquest over evil, and the prosperity of the Holy Mother's Church. Thus, as early as the 13th century, the Rosary was given its present classical form, bound together by string or wire. Still, the roots of the Rosary can be traced to the Bible and the practices of the early Christians. Popes have called it "A Gospel Prayer". It has been referred to as "an illustrated prayer book one can read in the dark." "It is also called, "a pocket edition of the New Testament".

At Fatima, the Mother of God insisted that the Rosary be prayed properly. That meant meditating on the Mysteries of the Rosary, the principle events of the life of Jesus Christ, and the chief events of our redemption while praying the *Hail Mary's*. The Rosary properly prayed is centered on Jesus Christ. In praying the Holy Rosary, the whole man is employed. The Rosary invites our fingers, our lips, and our heart. The body as well as the soul is employed. Pope Benedict XV said, "When we have meditated on the Joyful, Sorrowful, and Glorious mysteries of the Rosary, we have meditated on all the chief events of our salvation." I have found that those who find it difficult to meditate on the mysteries of the Rosary, while praying the *Hail Mary's*, are helped much by the simple method of forming an image of each mystery in one's mind before beginning each decade.

Some may ask why during the apparitions of Our

## **The Rosary Leads to the Holy Eucharist**

Lady at Fatima, the Rosary played such a prominent part. Is not the Holy Sacrifice of the Mass more important? Are not the Mass and the Sacraments, Our Lord's Body, the Blood, the Soul, and the Divinity, and the need for Confession most important for our times?

Well, the fact is-the Mass and the Sacraments are central to the Fatima message when understood in depth. The message of Fatima begins and ends with the Holy Eucharist. In asking for First Saturdays - our Lady asked that Confession be no less than once a month.

Holy Mass is the perpetuation of the Sacrifice of the Cross, the source of our salvation, the very center of all divine worship, and the very source of grace

# Meditation of the Rosary - by Fr. Slavko

from which will come the renewal of the world in Christ. Mary, as Spouse of the Holy Spirit, Mother of the Savior, and the Mediatrix of all graces, has no more of an ardent desire than to lead us to a fuller appreciation of the Mysteries of our Redemption and to a more abundant participation in the life-giving graces of the Mass and the Sacraments. If Mary attaches so much importance to the proper praying of the Rosary - the reason can only be that the Rosary is the most practical way to bring about the happy results of a fruitful participation in the Mass and the Sacraments. The Rosary will lead us to the Altar of Sacrifice, to the Holy Mass and Holy Communion, to a more intimate union with Jesus, and a profound grasp of the spirit of the Church. Who can meditate on the passion and death of Jesus in the sorrowful mysteries without the desire for forgiveness in the Sacrament of Reconciliation?

Pope Paul VI in his beautiful Marian document, *Marialis Cultus*, in regards to the meditation of the

Mysteries of the Rosary, spoke of the meditation as the soul of the Rosary. The body of the Rosary would be composed of the litany like prayers of the Hail Mary's and the Our Father's. Each decade concludes with giving glory to the Holy Trinity. To attempt to pray the Rosary only by saying the Hail Mary's and the Our Father's, Paul VI wrote, would be "like a dead corpse without its soul." Those who see the Rosary only as a repetitious prayer that is monotonous, do not know how to pray the Rosary properly. The Bible condemns not repetition in prayer, but "vain" repetition "I love you" when expressed from the heart, even repeatedly, is never monotonous. The first part of the Hail Mary prayer is from the Bible, thus, under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Its second part is composed by the Church, and, therefore, also guided by the Holy Spirit. When, the litany like prayers are enlivened by the soul of the Rosary-a power of the Spirit is released upon souls

who pray it and for whom they pray. Mary, most favorite Daughter of God the Father, Mother of the Son, and Spouse of the Holy Spirit, is being praised and invoked. The mysteries of the life of Christ which is meditated in union with the Mother of the Church, as the Mother of God, are given power and life to the soul which prayerfully meditates.

All things can be obtained by praying the Rosary properly. It is "A Gospel Prayer. It is centered on Jesus Christ with whom Mary is inseparable. The daily devout praying of the Rosary in the proper way-meditating on its mysteries-will bring one to desire intensely the Holy Eucharist.

- From Fatima Family Apostolate

## MEDITATION OF THE ROSARY THE JOYFUL MYSTERIES

### *Introductory Prayer:*

My Lord and my God, I want to devote to You this time of mine. Quite my heart. Help me to abandon myself completely to You. Do not let any of my words be empty. Let each word be a step closer to You. Enlighten my mind and open my heart so that Your Word may grow within it as a seed of love, faith, and hope; that it may grow like it did in the immaculate bosom of the Virgin after she, in all humbleness, had accepted to be the handmaid of God. Help me that I, also, may place myself at Your disposal as Your faithful servant.

### *First Joyful Mystery:*

Mary, you readily agreed to be the servant of the Lord after, having first been troubled, and then having thought about the heavenly call. Mary, you are the virgin prophet Isaiah speaks about. You knew your God so well and walked in His presence. You gave

### **Mirjana's Question and Answer about Fatima**

Visionary Mirjana's "Question and Answer" session at the National Conference on Medjugorje at the Notre Dame University on 5/30/04. Mirjana spoke English.

**Q: Can you say anything about how the message of Medjugorje completes the message of Fatima?**

**A:** How I know about Fatima, everything continues in Medjugorje. What She talks in Fatima, what She started, I think through these 10 secrets, it will be finished in Medjugorje. Her heart will win? She will win the part in this war. Everything will be finished in Medjugorje.

**Q: Has Mary said that these are Her last apparitions on earth?**

**A:** Like I said, she said these are the last apparitions on earth in this way. And I think that She thinks so many visionaries, but I think She never meant that She will never again appear on the earth.



# Meditation of the Rosary



Him your life because you were awaiting the promised Savior. You were not troubled because you were not ready to do His will, but because you could not believe that you were exactly the virgin upon whom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ould come and who would bear Emmanuel, "God with us." Your fear was not the fear of haughty and selfish men, but the fear of God's humble ones whom always readily do God's will, yet without self-praise and boasting. Mary, no wonder you were excited; because the night of damnation, the night of salvation, and the long awaited dawn bearing the Day met in you. Mary, perhaps you had other plans for your life when God entered into your life with His special plan. Still you, as His lowly servant, opened wide the door of your heart to Him. Your example prompts me to turn to the Lord myself and to say to Him, "Come, O Lord, come. My soul is waiting for You generously, and my heart is ready to welcome You. Come into my dreams and into my plans; into my hopes and my fears. Enter into my life and I shall be Your servant all my life. I know that I am not worthy to have You under my roof, but I also know that You love sinners and that You constantly search for them. Therefore, O Lord, enter into my darkness, into my hardships, and into my pain. Enter into where you have been expelled by sin. Enter also into those parts of my life where I preferred my own will to Your holy will. Enter now while I am meditating and praying before the cross of Your Son and before the figure of His Mother, who conceived Him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 ***Second Joyful Mystery:***

Mary, you went to visit your cousin Elizabeth. It is God's will that we bring Jesus into the life of other people, once He has entered into our life; to bring Him into other people's joys and sorrows and into other people's darkness and bitterness. Therefore, Mary, let my love for the sick grow and become so strong that I may be able to recognize your Son in every sick brother and sister.

## ***Third Joyful Mystery:***

Mary, you are the bearer of the Word and the

Mother of salvation. You, whom consented to be the servant, has also become a Mother now. The Lord raises the lowly and that is why you are the Mother of the Savior. You gave birth to the one whom the prophets had announced and for whom the upright had longed. God has entered into my life, too. I also said, "God, I am Your servant." her nor a sister; neither a father nor a mother to people yet. O Mother of my God, grant that He may completely enter into my life while I adore Him.

## ***Fourth Joyful Mystery:***

Mary, I am watching you in my mind as you present your first-born Son to the Heavenly Father so that salvation may come through Him. At the presentation you were certainly saying: O God, here is my Son. He is the fruit of my womb, but He belongs to You, as I want to belong to You with all my heart." I am also standing with you, Mary, in the temple before the Lord, and presenting myself to Him following your example. I have received everything, and I give away everything. I do not want to keep anything for my self, either before God or before men.

## ***Fifth Joyful Mystery:***

I watch you, Mary, bringing up your Son with all responsibility. You had taken Him to the temple. The joy of meeting in the temple turned into a great sorrow for you. For three days, you did not know where your Son was, and you were unhappy. But your sorrow did not prevent you from doing the Father's will. You went in search of Him, and your search was rewarded with a new joy.

Mary, while praying these mysteries I am meditating on how God, after having entered into your life, prepared you for even greater favors. Encouraged by these mysterious events, I say, once again, in face of all my trials and fears, "Here I am, O Lord, enter into my life. I want to do Your will, even in times of hardships. I want all my crosses and difficulties to bear new meanings with You.

-- To be continued -

## Testimony of Manuel Reato

Student of Theology from Italy



Manuel Reato (23), a student of theology from Torino, Italy, has come several times to Medjugorje. Medjugorje has changed his life. Our Lady's messages have deeply touched his heart, and he believes that they are important for the whole world. Manuel is trying to live Our Lady's message in his daily life. In Medjugorje, he has learned to seek God, and it is here that he has learned what it means to pray with his heart. Although he has been in a wheelchair since his early childhood, Manuel feels a call to become a priest.

**Manuel Reato:** I came to Medjugorje for the first time in 1990, when I was only 10 years old. In the depth of my heart, I felt Our Lady's presence. Although, I spoke no Croatian, it was difficult to follow all that was happening here, and the pastoral work of the Franciscans was a real school for me, especially the evening prayer program.

After my first pilgrimage to Medjugorje, I decided to continue to pray as I prayed in here. I began to pray the rosary every day, I went regularly for Mass, and I started to pray for healing as you do in Medjugorje—especially on Fridays, in front of the Cross. As the time was passing, the desire to come back was growing, so I continued to come every year, even during the war. There was also certain fear, of course, but I simply couldn't stay far from Medjugorje. One evening, Fr. Slavko said that we should not climb the mountain, because there was a danger of bombings, but the same evening, he was the first one to go up. Many followed him. As we were climbing, I was thinking that I could even die, but at the same moment, I felt a voice in my heart: "Do not be afraid, I am here." I knew that it was Our Lady's voice, and the fear disappeared; not only at that moment, but forever. These were my beginnings in Medjugorje.

Each new coming deepened my experience of God

and my prayers. Through the Adoration, I learned that prayer was a dialogue with the living Jesus. The dearly departed Fr. Slavko Barbaric is my greatest example. When I felt the call to the priesthood, I got anxious about it, and this is why I am coming every year. Each time, I entrust to Our Lady the coming year, and I tell her, "Mother, help me!"; and she has really always helped me. Before beginning my studies of theology, I had to complete my secondary education, and I had great difficulties. I came to Medjugorje and I said, "Our Lady, if you really want me to be a priest, help me to prepare for the seminary." A year later, I came to Medjugorje with excellent results of the exams that I had to pass in order to study theology. Our Lady gave me the strength to study and to overcome all the difficulties, and I am forever grateful.

In 1997, I asked Our Lady to teach me Croatian and—little by little—I managed to learn. Then, I wanted to help in spreading, in Italy the news about the beauty of Our Lady, of this church, this shrine, and these people. I started to translate homilies in Italian, because I thought that it was important for people and for priests to understand. What is being thought in Medjugorje is neither strange nor new. Here it is only being shown that Jesus is alive. This is why so many young people from the whole world decide here to follow Jesus and to entrust their whole life to him. In Medjugorje, one can really say: "Jesus is alive!" This is, in fact, all that Our Lady wants to tell us: Jesus is alive.

In 2001, I was surfing on the Internet and I found an Italian title: Information from Medjugorje. I subscribed to the mailing list, and I saw that many do not really know what is happening daily in Medjugorje. As soon as, in Italy, they realized that I understood Croatian, they asked me to translate. I feel this as a responsibility, as a service for Our Lady and for Medjugorje which both has given me so much. I was translating all that I could find in Croatian. The list was growing and the group became bigger. This



service fills me with joy. When I translate something about Medjugorje, I feel like being there. A group called "In Love With Mary" existed before this mailing list. The idea was to create a prayer group on the Internet. We regularly exchange our reflections on Our Lady's messages. Every evening at 9 pm, we are united in prayer. We share our prayer intentions through the Internet and send our prayer intentions to Medjugorje through the official Home page of the Shrine. Sometimes we meet. During the Youth Festival, some of us were here, and we had the opportunity to pray together and to share.

Although I have been in a wheelchair since my birth, I would say, "Everything is possible to God." Here, Our Lady is telling us all the time that God is all-powerful; that he is a Father who loves us. This experience of an infinite, unconditional love of God helped me to live with my physical handicap. I made this profound experience of the love of God here in Medjugorje, through the intercession of Our Lady. Without Medjugorje, I surely would not be the man that I am today. I want to say to all young handicapped people that God is almighty. Do not be afraid of God and do not be angry with Him! He is waiting for you; He is reaching out to you; He wants to take you by the hand and make of you an example and a sign for the whole world. When you are in difficulties, just take Our Lady - your Mother - by the hand, and you will see, you will experience the truth of what she is telling in the messages: that she is our Mother, that she is with us, that she loves us, and that she intercedes for us.

God is great. Our Lady is great. She is our Mother, the Queen of Peace, and she wants to help us all. She wants us to experience God's love and to feel His presence in our lives.

From [www.medjugorje.hr](http://www.medjugorje.hr)

## Testimony of Mons. Geevarghese

Bishop of the Diocese Bathery, India

He came to Medjugorje with a group of 25 pilgrims from Switzerland. On Saturday, June 25, the Anniversary of the Apparitions, he concelebrated the evening Mass, which was presided by Fr. Branko Rados, the pastor of Medjugorje. After having finished his studies in Rome, Italy, Mons. Geevarghese went back to India where he was appointed rector of the minor and of the major seminary in his diocese. He was named bishop in 1997. In 2003, during his ad limina visit in Rome, the Holy Father said that the syro-malankara Church was one of the fastest growing Churches in the world. The diocese of Bathery exists since 1979. There are about 25,000 Catholics, 98 priests, about 250 religious sisters, 45 seminarians, and many o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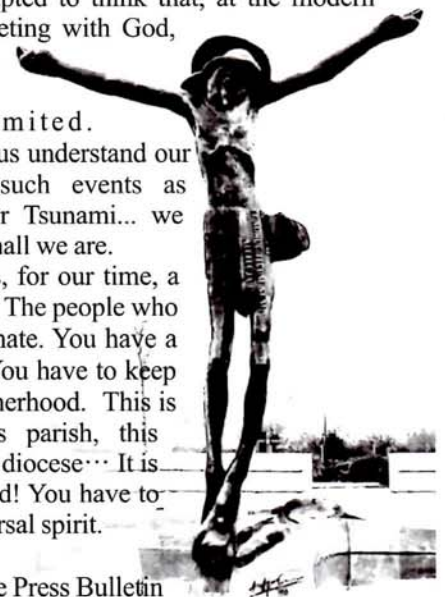
vocations. The western relativism is penetrating big cities, but not the countryside, because the religious roots are very strong. Mons. Geevarghese gave his testimony about Medjugorje to Dragan Soldo for Radio "Mir" Medjugorje. Mons. Geevarghese Mar Divannasios Ottathengil: I heard about Medjugorje, for the first time, about 15-20 years ago, but I was doubting. I was not very much interested in coming here, but a friend of mine, a priest from Switzerland, told me about Medjugorje and about his experience. His attitude as a priest had tremendously changed after Medjugorje. He was praying well, and with regards to his relationship with others, he became very human. He is a real priest now! That made me think: "There must be something in Medjugorje?!" Roman Gruether told me that Medjugorje was different from other places of pilgrimages; that the natural atmosphere is kept, and that people are really praying here. Last year, I made up my mind to come and see for myself. I came with a group from Switzerland led by Sylvia Keller.

My experience is corresponding to my expectations. These 3 days are a confirmation. One can feel the family spirit here. People who are involved in the service, even the smallest service, do it with love and with joy. This place gives us also the experience of the universal family. Everyone feels at home here, like in one's mother's house. I met the visionaries; I visited Marija, Ivan, and Vicka. I think that they are real visionaries. Medjugorje will be recognized, there is no doubt! Today or tomorrow, maybe a little later, 100% sure it will be recognized! These messages are really needed: prayer, Holy Mass, penance, confession, fasting, and conversion. At any age, they are the fundamentals of spiritual life. Without Jesus; there is no spiritual life, self-denial, nor living for God or for others. Often, we are tempted to think that, at the modern age, we are competing with God, but we have to realize that human beings are limited.

Catastrophes help us understand our limits. Through such events as September 11th or Tsunami... we understand how small we are.

Medjugorje is, for our time, a real call from God. The people who live here are fortunate. You have a special vocation. You have to keep this universal brotherhood. This is not only for this parish, this region, nor for this diocese... It is for the whole world! You have to promote this universal spirit.

-From Medjugorje Press Bulletin



# The Way of The Cross



## **SECOND STATION** **JESUS, YOU ARE TAKING THE HEAVY CROSS** **ON YOUR ALREADY WOUNDED SHOULDERS**

The big heavy cross appears as if it needs to be balanced on Jesus' shoulders. People who are following Him, are still holding the cross, but are prepared to let this sad procession begin. There are some who hasten them on with curses and threats. Some are bowing before Him, mocking and trying to provoke Him. But He is gentle and keeps silent, leaning on the wood of the cross with the crown of thorns on His head. He is ready to take His first step to Calvary.

*From the Bible: Jesus was led away, and carrying the cross by Himself, went out to what is called the place of the Skull (in Hebrew, Golgotha). (Jn 19:17)*

- We adore you, O Christ, and we praise you.
- Because by your holy cross, you have redeemed the world.

Jesus, it is truly sad that you had to experience so much suffering from us. You were in pain. Your strength was diminishing, and on your back was a heavy wooden cross. While the cross was being put on your shoulders, you experienced curses, blasphemy, mockery, and heavy blows. And you, like the sacrificial Lamb, did not resist.

O my Jesus, I desire to offer to you a comforting word. Your Mother has not deserted you. She cares and follows you on the way. Although she cannot take the cross onto her shoulders, she accepted it and took it into her heart, and shared your burden. Therefore, in full confidence, I can say that you, Mary, took the cross onto your motherly shoulders and into your motherly heart.

O Jesus, the sufferer, and the Mother, the sufferer, I am heartily sorry for my behavior towards you. I am heartily sorry that, because of my behavior, I have placed crosses onto my shoulders and onto the shoulders of people around me.

Jesus, I promise to change my life and my behavior. From this moment on, I would prefer that others lay crosses onto my shoulders rather than to ever lay my cross onto theirs.

I promise to intercede for those who carry crosses, and will try my very best to prevent these scenes of the Crucifixion from ever happening again. Forgive me, Jesus, for not preventing evil in situations where I was able. From now on, I will be near those who suffer. I accept my limitations to help, but will not distance myself. I am ready to suffer silently like your Mother did.

*Message: Dear Children! During these days while you are joyfully celebrating the cross, I desire that your cross, also, would be a joy for you. Especially, dear children, pray that you are able to accept illness and suffering with love, the way Jesus accepted them. Only in that way, will I be able to give you the graces and healings which Jesus allows me.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September 11, 1986)*

- We thank you, O Mary, and we bless you.
- Because by your suffering, you have helped to redeem the world.

Mary, I seriously want to remain with you. I want to learn from you how to suffer with others even when I cannot help them. And to you, Mother, from the depths of my heart, I thank you for the painful walk, along with your Son, Amen!

Have mercy on us, O Lord!  
Have mercy on us!  
O Mary, Mother of Sorrows,  
Intercede for us.  
Oh, how sad and sore distressed  
Was that Mother highly blessed  
Of the sole begotten One!  
Holy Mother, pierce me through,  
In my heart each wound renew,  
Of my Savior crucified.

-- To be continued --

# The Way of The Cross by Fr. Slavko



## FIRST STATION

**JESUS, YOU ARE CONDEMNED TO DEATH**

They want Jesus crucified. The angry crowds, influenced by the chief priests, are shouting and threatening with their fists and sticks raised. The soldiers and the people are awaiting Pilate's verdict, whom, after a fearful attempt to save the Man, washed his hands and handed Him over to his killers.

The damaged pride and vanity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are calling to, "Crucify Him!" Among the fists and sticks which were raised in a sea of hatefulness, the Christ, who, in spite of His disfigured body, resulting from the many beatings, still shows His majestic grace. He directs His gentle and sad look towards those who condemn Him, and penetrates their hard-shelled hearts. From His swollen face, forgiveness is sensed for the whole of ungrateful mankind.

The only comfort to Jesus is the presence of His Mother. Her presence is discreet, but real, as their hearts blend into one pain.

*From the Bible: Yet I, like a trusting lamb led to slaughter, had not realized that they were hatching plots against me: "Let us destroy the tree in its vigor; let us cut him off from the land of the living, so that his name will be spoken no more". (Jer 11:19)*

- We adore you, O Christ, and we praise you.
- Because by your holy cross, you have redeemed the world

My Jesus, you were judged, but you never judged. Therefore, what Pilate said is true: "Here is the Man." It is a terrible moment for you and your Mother Mary; to be just and innocent, and, in return, to be severely treated by people who through your wounded heart and the wounded heart of your Mother; unit them into one heart of suffering and pain. After a lifetime of freeing the innocent and protecting the rejected, you were made equal to the outlaws. O, how it must have increased

your pain.

Jesus, forgive us for what we have done to you. Jesus, forgive us for continuing to do the same whenever the innocent are killed, the just are judged, and whenever the poor are not helped.

Jesus, I promise now that I will lower my fists and lay down my stick, which I have raised so many times against those around me. I, also, pray for those who are afraid to protect the innocent, the righteous, the poor, and the 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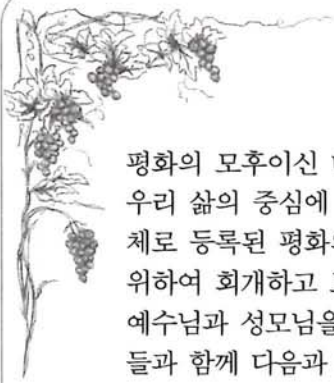
*Message: Dear Children! This evening in a special way I am calling you to perseverance in trials. Ponder how the Almighty is still suffering today because of your sins. So when sufferings come, offer them as a sacrifice to God.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March 29, 1984)*

- We thank you, O Mary, and we bless you.
- Because by your sufferings, you have helped to redeem the world.

You are not retreating, even though you are helpless. You knew, as a Mother, how important it was to be near your Son in those most difficult moments. Here I am, Mary. I want to accompany you so that you will not be alone among the people who hate, reject, condemn, and seek death.

I am joining you with my love, my compassion, and my readiness to be near those for whom your Son and you suffer.

Have mercy on us, O Lord!  
Have mercy on us!  
O Mary, Mother of Sorrows,  
Intercede for us.  
Through her heart, His sorrows sharing,  
All his bitter anguish bearing,  
Now at length the sword had passed.  
Holy Mother, pierce me through,  
In my heart each wound renew,  
Of my Savior crucified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뉴욕교구 가톨릭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를 발행하며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회개하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원 회원님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발행 및 무료보급
- 2. 신앙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
- 3.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
- 4.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한 미디어물 제작
- 5.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육성및 운영
- 6.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7. 메주고리에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8. 기타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성모님께서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며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들을 성모님의 평화의 사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메주고리에" 소식지의 의 꾸준한 발행을 통하여 성모님의 메시지를 더욱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는 선교 사명에 쓰여지고 있으며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후원 회원님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를 보내드립니다.
- 2. 메주고리에 순례 때와 매월 성모 신심 첫 토요일에 회원들의 기도 지향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해 드리고 있습니다.
-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와 모든 기도 지향"을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에게 전해 주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과 가정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 5.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IRS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회원 가입서

성명 : \_\_\_\_\_ 영문 : \_\_\_\_\_ 영세명 : \_\_\_\_\_

주소 :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전화(H) : \_\_\_\_\_ 전화(O) : \_\_\_\_\_ 날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E-mail : \_\_\_\_\_ 소속본당 : \_\_\_\_\_

해당란에  표 하여 주십시오. 월( ) 년( ) 기타( ) 금액 \$ \_\_\_\_\_ 기존회원 ( ) 새회원 ( )

보내실곳 ▶ 미국 : 남그레고리오 (610-965-6168) \*  
**Queen of Peace Missionary**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 한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Tel 02-2281-3236 Fax. 02-2298-3135)  
 서울 성동구 옥수 1동 515-1 B1 전화번호: 02-2281-3236 / 팩스 번호: 02-2281-3246  
 후원금 입금 계좌: 신한은행 242-01-007905 (예금주: 평화의 모후 선교회)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모니카, 길마리아, 최정, 표현경, 최루시아, 최말세리노, 송란규, 송정순, 황정애, 홍병오, 한울리아나, 하크리스티나, 이수동, 이경애 마리아, 이수, 이선여 이빨리나, 이윤정, 오지은, 엄봉화, 윤정숙, 윤병윤, 유글라라, 친모니카, Muzzanghee, Meg Jung & Ass. 심재석, 신디아, 손테레사, 권순연, 백안셀모, 박혜정, 친모니카, 강동훈, 신동배, 김성자, 김울리아나, 조환원, 김성, 김젼마, 김주희, 김로사, 익명의 그리스도인, 34차 순례단 일동, 이성길 신부  
캐나다 : 성정숙, 윤테레사, 이준용

34차 순례단의 이성길 지도 신부님께서 순례중에 봉헌된 미사예물을 체니콜로 공동체에 \$500, 요조신부님의 고아원에 \$700, 메주고리에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1,358.00을 후원해주셨습니다.

- 지난 28호는 특집 "낙태와 생명의 생명의 존귀함"을 주제로 총 16,500부를 인쇄하여 한국과 괌, 사이판을 포함한 미주 전 지역과 캐나다, 이태리, 호주와 메주고리를 통하여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보다 많은 곳에 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28호 이월금	\$ 1,071.00
29호 후원금	\$ 6,538.00
지출 (29호 소식지)	
인쇄, 발송, 후원회원봉투 인쇄	\$ 6,900.00
통신비	\$ 480.00
교통비	\$ 930.00
사무용품 및 기타 비용	\$ 567.00
지출 합계	\$ 8,877.00
29호 잔액	- \$1,269.00

### 설터

메주고리에 오신 성모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나는 너희의 기도가 필요하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단의 묵주의 기도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손에 들린 돌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다윗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에 묵주를 쥐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묵주기도를 하라고 부른다. 기도하면 사탄은 너희를 조금도 해칠 수가 없단다. 너희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하여라. 그리고 사탄에게 너희가 주님의 자녀라는 표시로서 항상 손에 묵주를 들고 기도하여라. (1988년 2월 25일)

요조 즈브코 신부의 묵상집에서 발췌





##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y*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들을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달라고 초대한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해 주기 바란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들의 마음은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www.qpmm.org](http://www.qpmm.org)

USA

**남그레고리오 (Gregory Nam)**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Tel. 610-965-6168 / Fax. 610-965-6179  
E-mail : gregorynam@hotmail.com

CANADA

**이준용 클레**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KOREA

**노선백 마리노**  
서울시 성동구 옥수 1동 515-1 B1  
Tel. 02-2281-3236 / Fax. 02-2281-3246  
E-mail : soulbassmaster@hotmail.com